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198호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대전마권장외발매소 둘러싼 월평동 주민, 검찰 고발 잇따라

주민들 16명의 시의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대전지검에 고발

대전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대전 서구 월평동 주민들의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 · 서구6)은 19일 보도자료에서 "13일에는 주민들이 16명의 시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17일에는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부적정 집행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마권장외발매소 관련해 이번달 13일 월평동 주민(성명미상)이 채계순 의원 외 16명의 시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 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혐의로, 17일에는 이춘구 외 4인(가칭 대전 open society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이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를 사업비 부적정 집행혐의로 각각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계순 의원 외 16인의 시의원 고발은"2019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전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결정에 따른 월평동 주변지역 도시재생 이행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장이 대전광역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존치를 주장했다는 허의의 내용을 담아 공문서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고발은 "대전시가 2015년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화상경마장(서구 월평동 소재)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학교교육문제,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 해결을 위해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 사업을 위탁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사업비를 직원급여와 자체 직영사업 등에 사용하는 등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해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1년 폐쇄 예정인 대전마권장외발매소가 구체적인 대안없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월평동 지역주민들은 폐쇄 이후 주변지역 상권 붕괴, 세수감소 문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마권장외발매소 직원 문제 등에 대한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줄곧 촉구해왔다.

이런가운데, 오는 23일 오전 10시 더한힘리더십 교육장(대전 서구 계룡로 650 5층, 용문역 1번 출구)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시민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재부 예타 대상 최종 선정

2025년까지 2715억 원 투입 계획

충남도가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상처 입은 가로림만을 상생과 공존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볼 전망이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121만㎡의 면적에 12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정원센터와 갯벌정원 등을 조성한다.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은 가로림만 생태 가치 발굴 · 활용, 융합형 생태관광지 조성, 국내 · 외 해양생태관광 거점 마련과 생태보전 가치 증대를 위해 가로림만 생태학교와 점박이물범 홍보관, 해양힐링숲 등을 총 면적은 11만 4000㎡, 사업비는 631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상생 사업'은 생태둘레길과 생태탐방뱃길 조성, 생태투어버스 브랜드 및 상품 개발 등이 있으며, 투입 예산은 860억 원이다.

양승조 지사는 "가로림만은 수많은 생명을 품은 갯벌과 바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며 "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가로림만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은 양 지사와 맹정호 시장, 가세로 군수, 성일종 국회의원 등이 기재부 장 · 차관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지자체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이룬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환 기자

천안 하늘그린배, 미국 · 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

신선농산물 홍보 판촉 참여…1000만달러 이상 수출 협약 성과

충남 천안의 대표적인 과일인 하늘그린배가 북미시장으로 본격 진출했다.

충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로 발길을 재촉, 시장개척에 나섰다.

도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차례로 방문, '2019 북미 신선농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가졌다.

이번 판촉행사는 도 대표 농산물인 배와 김치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 제품의 북미시장 개척을 돕고, 올해 최초 캐나다로 수출된 충남 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 등 일행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한남수퍼 등 4개 매장을 찾아 농산물 수출 판촉 및 판로개척을 도모했다.

미국으로 장소를 옮긴 일행단은 씨푸드시티(Seafood-City) 등 17개 유통매장을 찾아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와 천안배원예농협은 이번 홍보판촉을 통해 캐나다 T-bro thers사와 미국 Jayone사 등 주요 바이어와 농식품 수출협약을 체결,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합의를 이끌었다.

추욱 국장은 "향후 도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가공한 농촌융복합(6차)산업 제품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 백화점 부지 시민 휴식 · 교류 공간으로 '탈바꿈'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 백화점 부지가 시민 휴식 · 교류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나성동 중심상업지구에 백화점 입점을 추진했으나, 백화점 부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방치되고 있다" 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및 시민주권회의의 논의를 거쳐 백화점 부지 임시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부지에 사업비 약 3억원을 투입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광장, 초화원, 산책로, 주차장등이 들어선다.

또 잡초가 우거진 백화점 부지를 개발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휴식.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백화점 남쪽 부지는 광장과 초화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광장은 기존 계획에 반영된 백화점 부지와 어반아트리움의 광장 부지를 연계해 행사나 집회를 하고 여가도 즐기는 도시민들의 삶의 중심지를 만든다.

초화원은 3만 713㎡ 규모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품종의 꽃을 심는 등 시민과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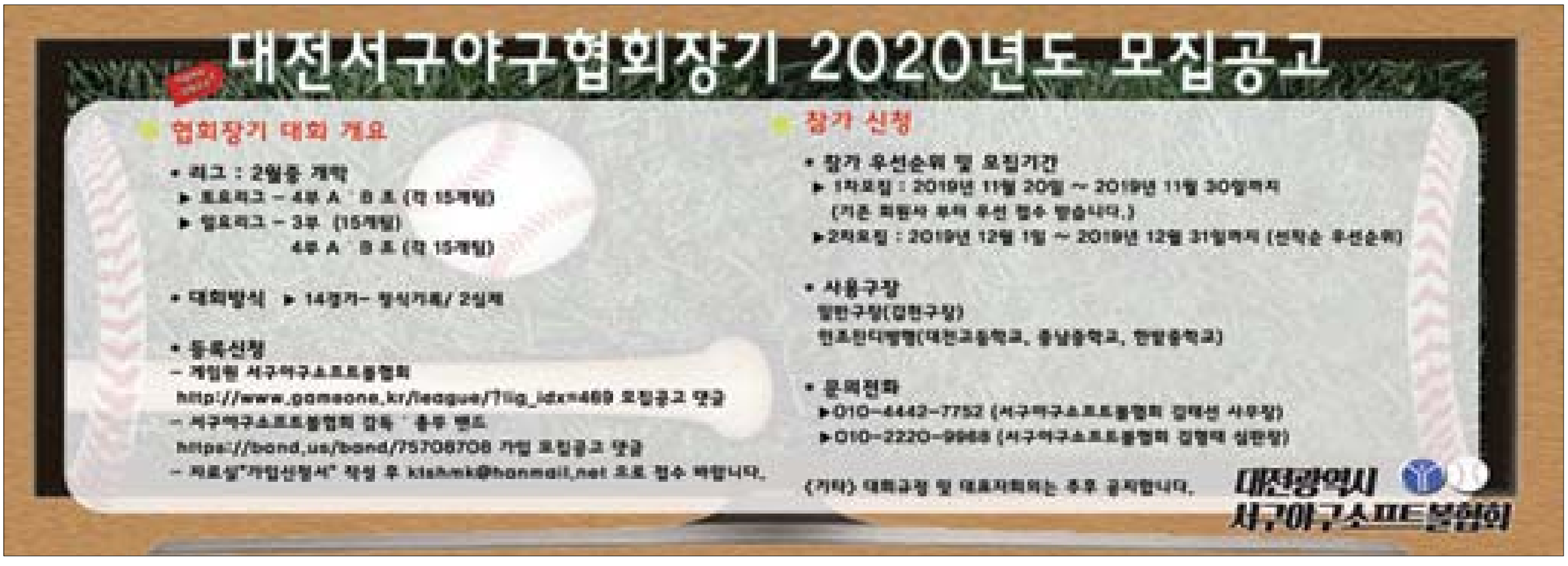
또 초화원 곳곳에 산책로를 만들고 시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주변 여러 곳에 진출입로도 함께 조성된다.

백화점 북쪽 부지는 약 1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넓혀 주차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나성동 백화점 부지를 활용하여 중심상업지구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물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종시 전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화원, 광장, 산책로 등의 조성은 LH에서 담당하고 유지관리는 세종시에서 담당한다.

김태선 기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내년부터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 오는 2023년부터 전국 서비스 시작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방재정관리의 모든 과정을 고도화하고,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인프라로서, ‘05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총 1,700여억원 규모의 3개년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년도 구축 국비예산 89억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3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의 지방재정 업무가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첫째, 지방재정 통계 적시 산출 및 가용재원, 재정추이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재정 관리가 더 신속, 투명해진다.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재정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스템 기반으로 통계를 자동 산출함으로써 지방재정데이터의 정합성 및 적시성이 강화되고, 국가 · 지방 · 교육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범 국가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243개 자치단체 개별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반영하고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둘째, 수기 처리하는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함으로써 보조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43개 전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수급 자격을 검증하고 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보조금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원화 관리로 인한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가중 해소 및 국가보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셋째,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 관련 예산정보의 신속한 검색, 온라인 대금 청구 및 보조금관리 포털 서비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정정보 공개 및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처리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결과 확인, 교부신청 제출, 건별 지출처리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을 자치단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맞춤형 보조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재정업무 처리와 지방재정 관련 주민 맞춤형 정보공개 및 서비스가 확대되며,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지방재정의 전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알리”와 함께하는 선거법 Q&A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등이 연말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음성 · 사진 · 동영상 포함)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042) 471–1390

아산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폐회

제3차 본회의 끝으로 2019년 회기일정 모두 마무리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9일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3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20년도 업무계획 청취,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1조 1089억 원 중, 총 40개 사업 36억 6699만원을 감액하여 아산시 예산 1조 1052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규모 310억원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했다.

의사일정 상정 전 이의상 의원의 "제216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심의를 마치며"와 김미영 의원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회기 확정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 줄 것"을 당부하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절차를 벗어나 예산안을 성립시키려 했던 집행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자년 새해에는 희망찬 한해, 따뜻한 한해가 되는 간절한 바램과 함께 올 한해 아산시의회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안전 예방활동 강화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잘 살펴 희망과 웃음을 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8대 서산시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평가

19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 열어

제8대 서산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실천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시민 복리증진과 선진 의회상 정립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개원 후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회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 전원과 언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임재관 의장은 “제8대 서산시의회는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기치로 상생의정 · 책임의정 · 생활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며 일하는 의회 ·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제8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681건, 시정질문 165건, 5분발언 39건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대산공단 유증기 유출사고, 천수만 B지구 간척지 염해피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등 지역현안에 대해 성명서와 건의서를 발표하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기관 · 사회단체와 24회의 간담회를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44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 해결에 나섰다.

임 의장은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원 정책 · 입법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 소모임 활성화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해 의정 보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2019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우수상으로 광역의원 · 기초의원 각각 3명과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최우수상은 이해찬 당대표가 시상하고, 우수상은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시상할 예정이다.

11월 18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조례를 공모 받은 결과 총 350여건이 접수 되었다. 접수된 조례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의결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국회= 김성구기자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끝으로 2019년 마무리

인터넷 생방송, 수화통역방송, 시민 500여명과 간담회 등 ‘열린 의회’실현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19일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진시의회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열린 의회’와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시민중시, 소통중시, 현장중시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시의회 SNS 운영 및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 수화통역방송, 22회 총500여 명의 시민간담회를 통해 17만 당진시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또한 2회의 정례회와 7회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 29건을 포함한 161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11회의 5분 발언을 실시했으며 매월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18건의 조례를 제 · 개정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 구현에 힘썼다.

또한 지난 12일 당진땅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2천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방청객 기록을 세우면서 17만 당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기재 의장은“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염원속에서 제8차 본회의를 서부두 매립지에서 개의하여 명실상부한 당진 땅임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알렸다”면서“앞으로도 당진시의회는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끊임없이 쇄신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께 다가가며, 시민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832,673,372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18,658,768천원을 의결했으며 기금은 78,869,930천원으로 의결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 2019 최고 의원 선정 표창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 안선영 의원이 2019년 최고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9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중구개발위원회(회장 신봉희)와 중구지역인권센터(대표 송인웅)가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 했다.

이날 표창패 수여는 안선영 의원이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킴으로써 기금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초선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의 참된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표창패를 수여한다고 송인웅 대표와 신봉희 회장은 밝혔다.

안선영 의원은“시민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 최고의 의원 표창패 수상의 영광은 25만 중구 구민들에게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에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민의 복리증진을위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이상민–김윤기, 선거법 개정안 두고 SNS 설전

지난 17일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설전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SNS상에서 다시 설전을 벌였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시각, 이상민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패율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위원장은 “석패율제는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석패율제가 각 당의 실력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입법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소수 정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두려운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박병석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최다 선정’

NGO모니터단 1천여명 평가 · 심사 통해 선정 최고 권위 ‘영예’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 서갑 · 사진)이 270여개 시민단체로 공동으로 1천여명의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평가와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박 의원은 그동안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최다기록(15회)을 16회로 늘리는 한편 20대 국회 4년 연속으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됐다.

박 의원은 270여개 시민단체가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017년까지 10년 연속, 15회 수상이라는 헌정사상 첫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16회 선정(정무 7회, 경제4회,외교통일 5회)됨에 따라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등 풍부한 정책역량을 재 입증한 셈이다. 또한 박병석 의원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힘들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의 기록하고 있는 헌정사상 ‘첫’기록인 총 15번 수상(10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당시 NGO 모니터단 대표는 “이 기록은 깨기는 쉽지 않다”라고 언급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를 외교의 무기로 삼는 현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균형외교와 실용외교를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정복기자

천안시의회, 2019 정례회 마무리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42개의 안건 처리와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고 18일에 폐회했다.

지난 11월20일 개회 후 29일에 걸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등 다른 어느 회기보다 중요 안건이 많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꼼꼼히 살펴 방만히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고, 시민복리와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관련부서에 확인했다.

또한, 내년 시정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하여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일반회계 8억1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4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2020년 천안시 예산은 전년도 보다 900억 증가된 1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치견 의장은 “행정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철저한 개선책 마련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내년에도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 추부초학생들 만나 격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시의회를 견학 온 추부초등학교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의회견학 및 모의 의회 체험을 실시했다.

나군 · 다군 348명 선발, 수능80%, 학생부교과 20%, 신입생 전원 해외연수

선문대학교

2020학년도 선문대 정시모집은 나 · 다군에서 총 348명을 모집하며 수능 80%, 학생부 교과 20%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중 실기고사가 실시되는 스포츠과학과는 수능20%, 실기 80%를 반영한다. 모든 전형에서 별도의 면접은 실시하지 않는다.

■ 계열별 수능 반영영역 확인해야 = 선문대학교의 수능 성적(80% 반영)은 전 모집단위(공과대학, SW융합대학 제외)에서 국어/수학 택1, 영어, 탐구(1과목)가, 공과대학 및 SW융합대학은 수학, 영어, 탐구(1과목)가 반영되며 반영비율은 수능 반영영역별로 33.3%씩 반영되며, 영어만 33.4%가 반영된다.

모집군	구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한국사
			가형	나형		사/과/직		
나·다군	전 모집단위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제외)	33.3 (백분위)			33.4 (등급)	33.3 (백분위)	(33.3) (백분위)	필수
	공과대학, SW융합대학	–	33.3 (백분위)		33.4 (등급)	33.3 (백분위)		필수

■ 계열별 학생부교과성적 반영방법 확인 = 선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방법은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국사/윤리 포함), 과학 교과 중 15개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과목 선택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장 높은 성적의 과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며, 지원자는 선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성적산출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적을 산출해 볼 수 있다. 모든 모집단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교차지원에 따른 가 · 감점은 없다.

■ 수능 가중치 부여 = 한국사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취득한 등급에 따라 0~1점이, 공과대학 및 SW융합대학 모집단위 지원자 중 수학영역 가형 선택 시, 수학영역 총 점수에 5%가 가산된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협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알려진 선문대가 중부권을 넘어 전국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선문대는 2015년 교육부 주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전 · 충남 · 세종권역에서 유일한 최우수 A등급을 시작으로 다음 해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에 선정됐다. 2017년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됐고, 2018년에는 교육부 주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우수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과 동시에 충청 지역 최초로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부터는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약 125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선문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5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1,162억을 지원 받았다.(현재 진행 사업의 잔여 기간 포함) 모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인다. 이는 모든 교육과정을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해서 지역사회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과 실무역량을 집중 함양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체계로 전환한 결과다.

■ 학생 1인 평균 장학금 399만 원

선문대는 2018년 총 36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약 399만 원이라는 우수한 교육환경은 학생 중심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선문대의 자랑이다. 이는 등록금 대비 54.0%에 달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있다. 교내 · 외 총 97개의 장학금제도를 갖춰 선문대에 입학한 이들이 학업과 대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77개국, 1,889명 유학생 재학

선문대는 전 세계 77개국 1,88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하고 있다.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지역 사립대 1위이다.(201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가히 글로벌 캠퍼스라 불릴 수준이다.

국내 최초로 3+1 유학제도를 도입한 선문대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과 유학생을 관리하는 글로벌지원팀을 두고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어학연수와 유학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문대는 교내 글로벌 교육 환경도 우수하지만, 최근 독특한 해외 연수 방침을 세웠다. 바로 '졸업 전 해외 연수 프로그램 1회 이상 지원'이다. 대상은 전교생이다.

신규 글로벌 제도인 '선문 글로벌FLY 제도'를 2020학년도부터 시행하고자 올해 '선문, 모두가 해외로 가는 High-pass'라는 슬로건을 걸고 졸업 전 해외 연수 프로그램 1회 이상 지원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38개국 139개 대학과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00여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3+1 유학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하다. 더군다나 올 초에는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진로탐색 경험을 제공하는 '2019 파란사다리' 사업의 주관대학으로도 선정됐다. 탄탄한 글로벌 인프라에 힘입어 신청 대학 중 1위의 성과를 냈다. 올 여름방학에는 파란사다리 사업을 통해 미국 세인트피터스대학, 대만 명전대학,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에 4주간 현지 연수를 다녀왔다.

■ 서울에서 천안아산KTX역 30분 내외

천안, 아산 지역 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세종권에서도 선도적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문대학교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자 KTX 환승역인 아산역(선문대역)과 천안아산KTX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KTX나 SRT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30분 내외의 거리이다.

■ 같은 규모 대학 취업률 전국 2위

선문대 취업률은 69.5%로 같은 규모 대학('나' 그룹, 졸업생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전국 2위다(2017년 교육부 발표 통계). 학교 측은 '새내기부터 취업준비생까지 맞춤취업교육'과 '전폭적인 학교 지원'을 비결로 꼽았다.

송종현 입학처장 인/터/뷰

- 합격을 위한 팁(tip)을 준다면.

선문대학교 대입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 올해 정시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다만,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전년도 411명에서 올해 348명으로 63명이 줄어들어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과대학 및 SW융합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국어/수학 택1, 영어, 탐구(1과목)를, 공과대학 및 SW융합대학은 수학, 영어, 탐구(1과목)를 반영하는 수능 반영방법에 따른 유 · 불리를 반드시 따져보고 전년도 경쟁률 및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발표 이후, 수시이월인원이 반영되는 최종선발인원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문대 입시홈페이지의 성적산출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년도 합격자의 점수와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보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보건계열의 경우 수능 수학영역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수학영역 성적이 안 좋은 학생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교차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당부 말씀을.

선문대학교는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 높은 취업률, 그리고 천안아산KTX역과의 높은 교통접근성을 기본적으로 가진 대학입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두 번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을 정도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받고 있는 사업비 680여억원은 전부 우리 재학생들의 교육, 연구, 장학, 취업, 해외연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설된 '선문 글로벌 FLY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신입생들은 재학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은 무조건 해외연수의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잘 되고 특성화된 학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시 입학전형>

입학전형 일정표

정시 "나"군, "다"군 : 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정원외)

구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접수				2019. 12. 26.(목) ~ 2019. 12. 31.(화) 18:00	· 인터넷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서류제출				2019. 12. 26.(목) ~ 2020. 1. 3.(금)	· 제출처: (3146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선문대학교 입학관리팀 입학담당자 · 제출방법 -우편접수: 2020. 1. 3.(금) 도착분 -방문접수: 10: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함
실기고사	다군	예체능계	스포츠과학과	2020. 1. 20.(월) 09:00	· 아산캠퍼스 지정 고사장 · 지원자가 많을 경우 고사일이 연장될 수 있음 · 실기고사장 안내: 2020. 1. 14.(화) 15:00 본교 홈페이지
최초 합격자 발표	나·다군	인문사회계·자연계		2020. 1. 29.(수) 15:00	. 본교 홈페이지 및 ARS 개별 확인
	다군	예체능계			
최초 합격자 등록				2020. 2. 5.(수) ~ 2. 7.(금) 16:00	. 인터넷 등록 . 은행 마감 시간까지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2. 7.(금) 21:00 ~ 2. 17.(월) 21:00	. 개별 통보 및 본고 홈페이지 공지 . 세부 일정 추후 안내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				2020. 2. 18.(화) 16:00	. 인터넷 등록 . 은행 마감 시간까지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지원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서류 제출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자, 검정고시 출신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자,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

※ 서류 제출 대상자가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됨

※ 실기고사 대상자는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고사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수능 일반전형		실기 일반전형	합계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나군	다군	다군		나군	다군	나군	다군	나군	다군
인문사회계	인문사회대학	국어국문학과	30	-	6		6	-	모집	-	-	-	모집
		사회복지학과	44	7	-		7	모집	-	-	-	모집	-
		상담산업심리학과	39	5	-		5	모집	-	-	-	모집	-
		역사문화콘텐츠학부	61	-	10		10	-	모집	-	-	-	모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0	10	-		10	모집	-	-	-	모집	-
		법·경찰학과	62		10		10	-	모집	-	-	-	모집
		글로벌한국학과	31	-	-		-	-	모집	-	-	-	모집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외국어자율전공학부 ·영어전공 ·중국어전공 ·일본어전공 ·러시아어전공 ·스페인어중남미전공	177	-	36		36	-	모집	-	모집	-	모집
		경영학과	90	15	-		15	모집	-	모집	-	모집	-
		IT경영학과	37	-	10		10	-	모집	-	모집	-	모집
		국제경제통상학과	40	-	6		6	-	모집	-	모집	-	모집
		글로벌관광학과	34	-	5		5	-	모집	-	모집	-	모집
		국제관계학과	42	7	-		7	모집	-	-	-	모집	-
		행정학과	54	10	-		10	모집	-	-	-	모집	-
	신학결대학	신학순결학과	30	-	-		-	-	-	-	-	-	-
자연계	건강보건대학	제약생명공학과	85	-	12		12	-	모집	-	-	-	모집
		식품과학과	48	9	-		9	모집	-	모집	-	모집	-
		수산생명의학과	32	5	-		5	모집	-	모집	-	모집	-
		간호학과	56	9	-		9	모집	-	모집	-	모집	-
		물리치료학과	41	8	-		8	모집	-	모집	-	모집	-
		치위생학과	40	-	7		7	-	모집	-	모집	-	모집
	공과대학	응급구조학과	35	-	7		7	-	모집	-	모집	-	모집
		건축학부	58	9	-		9	모집	-	모집	-	모집	-
		토목방재공학과	32	5	-		5	모집	-	모집	-	모집	-
		기계공학과	71	-	10		10	-	모집	-	모집	-	모집
		정보통신공학과	85	-	14		14	-	모집	-	모집	-	모집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53	-	9		9	-	모집	-	모집	-	모집
		전자공학과	72		13		13	-	모집	-	모집	-	모집
		신소재공학과	53	10	-		10	모집	-	모집	-	모집	-
		환경생명화학공학과	60	-	10		10	-	모집	-	모집	-	모집
		산업경영공학과	61	10	-		10	모집	-	모집	-	모집	-
	SW융합대학	스마트자동차공학부	71	12	-		12	모집	-	모집	-	모집	-
		컴퓨터공학부	120	-	20		20	-	모집	-	모집	-	모집
		글로벌소프트웨어학과	40	6	-		6	모집	-	모집	-	모집	-
예체능계	인문사회대학	시각디자인학과	35	-	-	-	-	-	-	-	-	-	-
	건강보건대학	스포츠과학과	50	-	-	26	26	-	-	-	-	-	-
		무도경호학과	30	-	-	-	-	-	-	-	-	-	-
	합 계		2059	137	185	26	348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					

※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12. 25.(수)에 본교 홈페이지(http://www.sunmoon.ac.kr)에서 반드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해야 함

※ 신학순결학과, 글로벌한국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무도경호학과는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에 한하여 정시 다군에서 선발

※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에 한하여 정시 선발

※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부(임베디드시스템전공, 자동차3D설계전공)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정한 인증 기준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전공/프로그램) 입학생은 인증 프로그램에 소속되고, 인증 프로그램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해야함(인증혜택 : www.abeek.or.kr 참조)

※ 제약생명공학과는 약사 자격증 취득과 무관함

※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정한 간호교육인증 기준에 의하여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 인증을 획득함. 간호학과 입학생은 인증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인증 프로그램에서 정한 졸업요건(인증 요건 포함)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 건축학부는 건축학전공(5년제)_KAAB인증, 건축공학전공(4년제)이며, 건축학전공은 개정건축사법에 의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의 인증을 받는 과정임

리량주 기자

●동 정●●●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20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광역 시의회 접견실에서 신년사 영상을 촬영한 뒤 오후 3시 40분 대전광역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황인호 동구청장= 20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제11회 분권정책협의회

박용갑 중구청장= 20일 오후 5시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 7기 제11회 분권정책협의회' 참석.

지적재조사위원회

장종태 서구청장= 20일 오후 3시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참석한다.

제4차 본회의

정용래 유성구청장= 20일 오전 11시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동네돌봄 정책토론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20일 오후 2시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대덕구형 동네돌봄 정책토론회를 연다.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 메카 조성 속도 낸다

市,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최종 선정

대전시는 19일 오전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신청한 1,500억원(국비 750억 원) 규모의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엑스포 과학공원 내 유휴부지에 3만 6,620㎡(1만 1,077평) 규모로 세계적인 특수영상 산업 메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추세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대부분의 콘텐츠가 극적효과와 몰입감을 높여주기 위해 영화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대전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최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에 맞춰 광고, 영화, 드라마 등의 특수영상 제작자들이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장면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비용과 최고수준의 기술력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특수영상효과(SFX), 특수시각효과(VFX) 등 첨단기술 기업군의 성장 육성, 특수영상 연구개발(R&D)에 기반한 기술확산, 산학연 소통과 협력의 상호 네트워킹 생태계를 조성한다.

향후 10년 내에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국 파인우드 스튜디오 등 글로벌 플랫폼을 뛰어 넘는 혁신과 융합이 만드는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가 조성될 엑스포 과학공원 일원에는 국내 최대 규모 실내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큐브를 중심으로 다목적 수상촬영장, 액션영상센터, 사이언스 콤플렉스, 콘텐츠 코리아랩, 이(e)-스포츠경기장 등도 위치해 있다.

특수영상을 중심으로 콘텐츠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 간 활발한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성공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이후 타당성 연구용역, 전문가 세미나, 국회 포럼 등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및 지지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예정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성 등 제반 평가요소에 대한 대응논리를 충실히 마련해 갈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예타대상 사업 선정에는 조승래 의원, 박병석 의원,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 이은권 의원, 정용기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현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컸다"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은 반도체 등 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대표적 일자리 창출산업인데 그 중심인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대전에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생산유발효과 1,28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93억원, 청년일자리 창출 4,529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경제 성장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 비즈니스 모델 공유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18일 라온컨벤션에서 유성구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김은경) 주관으로 '2019 유성구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2개 기업이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부뚜막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도시락 및 로컬푸드에 대해, 올해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계산동 학마을 학교는 마을 교육공동체 및 대안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019한 해 동안 유성구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사회적가치 실현에 힘써주신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간 소통과 협력으로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되고 사회적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 통계조사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

서구,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올해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통계조사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구는 올해 실시한 광업 · 제조업 조사에서 다년간 숙련된 조사 노하우로 '불응 ZERO' 조사를 추진하여 불응이 없는 성공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또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제3차 시험조사'를 실시하면서 방문 조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1인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원 이름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고객 중심의 친절 조사를 하였다.

이 외에도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제 3차 시험조사' 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처음 도입되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조사를 하면서 통계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험조사 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

장종태 청장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통계를 생산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일자리정보 총망라 '익사이팅 잡(Job)' 블로그 오픈

동구, 수요자 맞춤형 구직정보 제공 · 실시간 상담창구 운영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구직 정보를 총망라한 일자리전용블로그 '익사이팅 잡(Job)'을 새로 오픈했다.

구 일자리지원센터가 관리 · 운영 중인 구의 일자리블로그는 구직자가 기업 홈페이지 등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일일이 검색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구인 · 구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 · 운영 중인 블로그에는 ▲일자리지원센터정보 ▲채용정보 ▲취업지원교육 ▲일자리뉴스 ▲구인지원 등의 다양하고 실속 있는 정보가 제공되며 온라인 실시간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구인 · 구직을 원하는 주민들은 대전동구 일자리지원센터 블로그를 검색하거나 일자리전용블로그(https://blog.naver.com/donggujob) '익사이팅 Job'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동구청 4층에 위치한 동구일자리지원센터(☎042-251-4635~7)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6명이 상시적으로 일자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구직자의 성공취업과 구인업체의 원활한 인재채용을 위해 블로그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청년에서 중장년에 이르는 공공일자리 모델 발굴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 최상의 일자리매칭 서비스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3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대전 만들기 합심

대전시는 19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장 및 유관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2020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 의결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지역의 안전환경 및 여건 등을 반영해 피해현황 분석,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계획과 세부추진대책 마련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안전관리위원들은 83개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의견제시 · 토론을 통해 2020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 확정했다.

이날 수립된 2020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 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등 크게 3개 테마로 구성된다.

피해유형별 대책은 ▲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9개 분야 ▲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64개 분야 ▲ 재난사고 예방교육, 재난대응훈련 등 재난안전 일반관리 10개 분야 등 모두 83개 대책에 대해 총 2,2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지난해 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자살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사업에 예산 투자를 강화해 각종 사건 · 사고와 사망자수 감축에 33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재난사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관리가 필요하다"며 "인명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디자인화랑 '따뜻한 겨울나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 디자인화랑 김태연 대표(왼쪽)가 지난 18일 오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박미애 본부장(오른쪽)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후원금은 대전지역 내 빈곤가정 아동들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에 사용 될 예정이다.

중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빈집

지난 2015년부터 48개 빈집 헐고 텃밭 · 주차장으로 만들어

대전에서 최초로 시작해 행정안전부 우수시책에 선정 됐던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의 빈집정비사업이 올해도 4개 동 철거로 순조롭게 추진됐다.

중구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그 곳을 공공 용도로 사용해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빈집을 정비해왔다.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4~9채 정도, 지금까지 모두 48개 빈집을 헐고 마을텃밭, 공공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올해 철거된 곳은 공공 주차장과 텃밭으로 바뀌어 주민에게 돌아갔다.

또한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약으로 추진했던 '공간정보 기반 빈집실태조사 시범사업'으로 올해 10개월 동안 872호의 빈집 현황조사를 마치고, 노후 · 불량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 산정을 마쳤다. 이는 내년에 수립될 빈집정비계획에 바탕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용갑 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주민들께 감사하며 내년부터는 빈집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 결과 핵종 '불검출'

대전시는 19일 오후 2시 유성구 관평동 주민센터에서 '2019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측정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사전시험 도중 멈춰서는 사고 등으로 불안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설명회여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시는 원자력관련시설 주변 환경에 대해 원자력 관련시설에 기인하는 방사성 핵종의 존재여부와 환경보전상태를 점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고 하고 매년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을 실시해왔다.

주요 검사내용은 공간 감마선량, 공기미립자, 하천수, 빗물, 지하수, 하천 및 육지토양, 농산물 및 지표식물 등 10개 항목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주변 35개 지점에서의 시료 채취와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검사결과, 공기 미립자와 표층토양 및 하천토양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수와 빗물, 지하수 분석 결과 요오드와 세슘, 우라늄과 같은 인공방사성 핵종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주변지역 농산물을 분석한 결과, 세슘의 방사능 농도가 1킬로그램(kg)당 0.01 ~ 0.09 베크렐(Bq)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한국의 방사성 세슘 기준 식품 1킬로그램(kg)당 100베크렐(Bq) 기준에 매우 미미한 양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대전시 사회단체 관계자, 관할공무원이 참석해 시료채취 작업을 수행했고, 조사결과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주변의 환경방사능 수준이 과거 조사와 우리나라 전역에서 검출되는 수치와 비슷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전시 하을호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뿐만 아니라 먹는물과 농수산물의 안정성 검증은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사항"이라며 "다양한 지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특히 시료채취와 검사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기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내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무 공간 지원,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 및 민간네트워크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레한마당 개최, 지역 사회 문제 등 의제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의 적극적 정책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덕구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및 종사자 네트워크 파티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사회적경제란 우리 지역의 필요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 하고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문제와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인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2020년 대덕구의 새로운 화두 중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잡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내농협,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염성진 과장보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사기 예방

산내농협 직원 염성진 과장보가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고객의 자산을 지켜 대전동부경찰서 김의옥 서장으로부터 19일 감사장을 받았다.

산내농협 대성지점에 근무하는 염 과장보는 지난 13일 인근 거주하는 남성 고객이 점심시간대 창구에 방문"타은행 대출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기억이 안나 농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고 한다"고 해 이상함을 감지하고, 고객에게 휴대폰 이용을 요청해 보이스피싱 일당과 통화해 확실한 금융기관이 맞는지 등 여러 사실 관계를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을 확인해 통화 종료 후 경찰 지능 범죄 수사대에 신고하고 고객과 계속 설득해 지연시키는 사이, 지능범죄 담당경찰이 내점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재차 확인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다.

감사장을 받은 염성진 과장보는 "지속적인 전화금융사기예방 교육과 타직원이 보여준 사고예방 유사사례와 고객과 대화를 통한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예방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경영 조합장은"「의심하고」,「전화끊고」,「확인하고」의 보이스피싱 제로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직원에게 교육하고, 고객에게 홍보해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동 정●●●

직장동우회 작품 전시회

양승조 충남도지사= 20일 오전 9시 천안시 현장 방문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장애문화예술 교류대회에 참석하며 오후 3시 30분 본관 1층에서 열리는 제4회 충남도청 직장동우회 작품 전시회에 참석.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 체결식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20일 오전 11시 세종시청에서 열리는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연고지 협약 체결식에 참석.

치매가족 송년모임 및 발표회

황선봉 예산군수= 20일 오후 1시 40분 추사홀에서 열리는 2019년 치매가족 송년모임 및 발표회에 참석.

하반기 퇴임 및 공로연수식

김석환 홍성군수= 20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퇴임 및 공로연수식에 참석.

홍성군 귀농귀촌 정책 전국 두각

3박자 귀농귀촌 정책 연이은 수상 쾌거… "각종 시책지원정책 발굴 전국 홍보"

홍성군은 올 한 내 3박자 귀농정책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를 활용한 친환경농업 육성,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시스템 운영, 촘촘하게 짜여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3박자 귀농귀촌 정책이 연이은 수상 쾌거는 이러한 지역 특화형 귀농귀촌 정책은 연합뉴스 주관 귀농귀촌박람회에서 우수 홍보관 선정, 한국경제 주관 2019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의 장년 분야 '노후를 투자하기 좋은 고장'에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우선 군에는 홍동면 풀무생활협동조합 · 갓골어린이집 · 밝맑도서관 등 친환경으로 특화된 민간 주도의 자생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유기농 귀농학교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군은 유기농 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0%대까지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군은 도시청년의 농촌정착을 위해 탐색기-준비기-심화기-독립기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청년농부사업단을 구축하고 청년농부사랑방인 청사초롱을 운영해 농부청년간 네트워크 조성 및 마을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했다.

군은 청년들의 거주문제와 농지문제를 해소하고자 거점형 팜스쿨(쉐어농장, 셰어하우스) 7개소를 조성하고 청년(여성) 단독 귀농귀촌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12명의 청년들이 거주문제를 해결하였고, 쉐어농장과 청년농부 실천농장을 통해 6명의 청년에게 독립영농 비용을 지원 중이다.

그 밖에 군농기센터와 민간조직인 홍성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인들의 모임인 귀농귀촌인협의회간의 상호협업이 잘되는 것도 장점이다. 정책에 대한 궁금함은 농기센터에, 귀농 · 귀촌 관련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시골살이의 노하우 등은 연합회에 묻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박자 귀농귀농정책에 부합한 각종 시책지원정책을 발굴해 귀농 귀촌 1번지 홍성을 전국에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21일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운행 개시

시민이 직접 이름 · 디자인 결정… SKT 첨단기술 장착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오는 21일부터 장군면에 처음 도입 · 운영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는 노선과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1시간 전에 콜센터(☎1644-8255)에 예약 전화를 하면 버스가 마을 앞까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수단이다.

두루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이름과 차량 외부 디자인을 정했으며, 1회 이용요금은 500원으로 기존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11월 11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에스케이티(SKT)로부터 최신 티맵(T-map)과 실시간 교통정보(API)를 활용한 최적 경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이동 중 다중이용 수요가 발생해 탑승자 및 운행정보가 바뀌더라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운행 경로가 재설정 된다.

또, 두루타는 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운전자를 돕는 지능형 운행 보조 시스템(ADAS)을 적용해 운행 안전도를 한층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위성항법장치(GPS)정보 등을 활용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활용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이용자 교통 편의를 돕는다.

이외에도 시는 마을회관에 콜백 시스템을 도입해 전화기가 없거나 이용방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를 돕고, 늦은 귀가 시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심귀가 라이브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수요응답형버스 두루타가 새로운 교통서비스로 안착해 읍면 노선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는 내년에는 금남면으로 확장 운영되며, 오는 2022년까지 세종시 전체 읍면에서 서비스된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스마트'한 도시로 변신한다

주민들 생활 편의 · 안전도 향상

홍성군이 18일 도청 소재도시에 걸맞은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해 한층 더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군은 올 한내 카드 매출 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관광, 생활인구 현황, 남당항 대하축제 등 3개 영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홍성읍뿐만 아니라 남당항-죽도 구간의 인구 추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대하축제 시기에는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해당 결과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등 관련 부서와 공유하며 관광축제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주민정보이용센터 클라우드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사무실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군은 2020년에는 3억8천만 원을 투자해 홍성군 통합 홈페이지 재구축에 나선다. 불필요한 홈페이지는 통합하고 홍성한우 등 멋거리, 즐길 거리 등을 보강해 최첨단 기능을 구현하는 홍성군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홍성군의 다양한 문화관광, 군정홍보, 기능보강, 검색기능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 전역에 인공지능(AI)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교통 · 환경 ·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홍성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도 · 농 복합도시인 홍성군의 맞춤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발주한 3억 8천만 원의 '홍성군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도 2020년 10월 완료할 계획으로, 지역 현안인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축산악취해결, 인구증가 정책 등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ICT 기술과 서비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90억 원 규모의 내포신도시 내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신축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제센터 1개소와 분야별 21개 스마트서비스 시설물과 장비들을 인계받게 된다.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은 " '내포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주민 안전도를 향상시켜 살기 좋은 홍성을 더 앞당기고, 주민 정보화교육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주민부터 서비스까지 스마트한 홍성군이 되도록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기후변화 적응 우수지자체로 선정

충남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주관한 '2019년 기후변화 적응 성과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수성과' 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1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변화 적응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역 · 기초 등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산 · 학 · 연 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는 이번 심사에서 ▲동아시아 지자체 최초 '기후비상상황' 선포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 ▲국내 첫 '기후변화 국제연합(Under2)' 가입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지정 등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 '보령화력발전소 1 · 2호기 조기 폐쇄' 확정 ▲국내 첫 이모작 가능 벼 품종 '빠르미' 개발 등의 성과도 크게 반영됐다.

황상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누구나 친환경 생활을 누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선제적인 신(新)기후체제 대응 및 도민 체감형 기후변화 정책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2019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

세종소방본부 전국 1위 올랐다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배덕곤)가 소방청 주관의 '2019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구급대응훈련은 다수사상자 발생 대형재난을 대비해 초기 구급대에 의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현장응급의료소 임무수행 및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10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포함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상황을 가정해 17개 기관 · 단체, 184명이 참여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합동 평가단은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 19개 시 · 도 소방본부 훈련장소를 직접 순회하며 평가한 결과 세종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세종소방본부는 올해 전국 심정지 환자 소생률('19.10말 기준 19.7%) 부문에서도 전국 1위로 차지한데 이어 구급정책 분야 2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관내 대형병원이 없는 부족한 의료환경 속에서 거둔 노력의 결실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은 "이번 두 가지 성과는 그동안 직원들의 혼신어린 훈련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전국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훈련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세종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2019년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 선정

군정 발전 성과 되돌아본다

예산군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 10대 성과는 군정 각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군정 운영을 통해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군정 발전의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는 ▲예당호 출렁다리 · 느린호수길 개통으로 산업형 관광도시로의 도약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 선정 ▲9년 연속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여성친화도시 선정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군 WHO 건강도시 지정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 ▲예산 1100년 기념관(다목적 문화체육시설) 공모선정 등이다.

특히 이번 10대 성과는 군정 목표에 부합한 우수성과와 대 · 내외적 군정 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성과,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성과 등이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김성구기자

세종아동옹호센터 · 세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업무협약및 놀이용품 지원 초록우산어린

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소장 최승인)는 지난 18일 세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정은화)와 아동 놀권리 보장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 관내 13개 지역아동센터에 [어디든 놀이터] 놀이용품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고회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9일 시청 여민실에서 '2019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강화사업 성과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과 이재완 세종시사회보장위원장, 19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위원회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기관 · 단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올 한 해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민관협력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우수 읍면동으로 뽑힌 아름동, 장군면, 전의면, 도담동과 민관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인과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이어 금남면의 안심하우스 운영 우수사례와 사회보장위원회 노인분과의 활동사례가 발표돼 올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공유 ·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민 · 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민관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042)538-3030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29(봉명동) 우경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우/리/동/네

천안시, 산업안전 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의결

'20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천안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천안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 · 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변경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측 대표인 이남동 행정안전국장과 근로자측 대표인 김순태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이남동 행정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이해를 위한 천안시 소속 신나리 공인노무사의 브리핑을 들은 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남동 행정안전국장은 "천안시 개청 이래 처음 개최한 이번 위원회는 공무직의 안전 · 보건에 대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드는데 초석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탈북민 정착지원 행사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회장 이완용)는 18일 오후 자문위원, 탈북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컨벤션웨딩홀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하나 되기 발걸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가 매년 진행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관내 탈북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탈북민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참석한 탈북민들이 노래와 춤 등을 선보이는 장기자랑 순서로 이어졌으며,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의 협조와 천안시, 천안농업협동조합, 천안재향경우충의회의 후원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이후 탈북민을 위한 위문품을 증정하고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체제가 다른 대한민국에 정착해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후원자 ·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

아우내은빛복지관(이수경 관장)은 지난 18일 복지관 다목적 강당에서 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따뜻한 나눔, 행복한 동행 아우내은빛복지관 후원자 ·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복지관을 위한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복지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운영위원장인 각원사 주지 대원스님을 비롯해 이규희 국회의원, 김득응 도의원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내 · 외빈들이 함께 자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복지유공자 표창, 감사의 마음을 담은 동영상 시청, 축하공연, 나눔 만찬,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함께해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의회, 기숙형 초 · 중학교 설립 위한 연구 모임 최종보고회

"소규모 학교 기숙형 초 · 중학교 설립해야"

천안시내 소규모학교를 초 · 중학교 기숙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기숙형 초 ·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 모임(이교희 · 정도희 · 김각현 · 권오중 · 김철환 의원)은 19일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를 가지고 최종 보고대회를 서북구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지난 제219회(2019.1.21)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이 34%에 이르고 이를 활용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재 천안시에 많은 소규모학교가 있으며 그 중의 한 곳을 잘 활용해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여 기숙사를

설치하면 기숙형 초 · 중학교의 설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 5분발언을 필두로 시작된 연구모임은 지난 11월 8일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지난 11월 8일 연구모임 중간보고회에서는 천안시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기숙형 초 · 중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하며 향후 설립 실현가능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었다.

19일은 연구모임의 최종 보고대회로 김철환 의원의 사회로 관련 연구모임 의원과 교수 2명, 기숙형 중학교 관련자, 교육청소년과 과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인 이교희 의원은 "이번 연구 모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으며, 최종적 결론은 기숙형 학교를 통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라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장려'

행안부 주최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일환 ·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천안시가 행안부 주최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일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 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과제인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열렸다.

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비서비스 추진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3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천안시는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개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인 맞춤형복지팀 확대 신설했으며, 보건 복지 전담인력을 66명 확충했다.

또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 민관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내년 1월에 열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강재형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수행해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202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하는 농촌형 사회혁신 창출사업

천안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국 123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 · 무형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농촌형 사회혁신 창출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행정협의체와 관내 농업인, 관련 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한 뒤 주민설명회와 추진단 실무자회의,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10여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공모사업 평가에서 지역소비시장과 연계한 선순환적 농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주요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도농상생 공동체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체경제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동체경제 커뮤니티 협의체 육성,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운영, 농산업 메이커(Maker) 육성 등이 있다.

지역먹거리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로컬푸드 복합가공센터 조성을 통한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과 단거리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소비시장과 연계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기반 구축사업으로는 도농상생 직거래매장, 신선 식품(Fresh Food) 판매 서비스, 체험관광 리뉴얼 사업, 로컬푸드 온라인 장터 시스템 구축, 농산업 자원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활동 조직 및 청년을 주축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 기반 조성,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행복드림 미래비전단 정책연구활동 발표

1년간 정책연구활동 마무리하는 발표회 열려

올 한해 천안시의 '행복드림 미래비전단'의 1년간 정책연구활동을 마무리하는 발표회가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는 실무직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7급 이하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동아리인 미래비전단을 2016년부터 4기째 운영하고 있다.

7급 이하 20~30대 실무직원 27명으로 구성된 올해 미래비전단은 올해 3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벤치마킹, 정책컨설팅, 해커톤대회 등을 통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 · 연구해왔다.

이날 미래비전단은 한 해 동안 펼친 활동결과를 발표했으며, 시는 1부문(분과별)과 2부문(개인별)으로 나누어 1부문에서는 최우수 1개 분과, 우수 2개 분과를 선정하고 2부문에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했다.

미래비전단은 노인일자리 창출, QR코드 민원안내시스템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각 과제들은 각 사업부서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향후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이 발표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신규 공무원인 최수종 주무관은 "선배들의 정책연구과제 발표를 보며 시민행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미래비전단에 참여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점을 찾아나설 때 천안시와 우리 직원들의 미래가 바뀌어 갈 것"이라며, "미래비전단원들이 먼저 그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나는 클래식 문화공연 운영

천안시 두정도서관(관장 문현주)은 이달 19일과 23일 두정도서관 2층 러닝커먼스(학습공유공간)에서 클래식 문화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클래식 문화공연은 두정도서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19일에는 클림앙상블이 '세계음악여행' 공연을 선보이고 23일에는 혁스뮤직이 '기타와 첼로 듀오콘서트'를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정도서관(☎521-3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두정도서관 러닝커먼스는 개인학습과 세미나, 토론, 만남,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두정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책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합문화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업무협약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 = 20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업무협약을 체결.

천안시체육인의 밤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20일 오후 6시 30분 웨딩베리 신관에서 열리는 2019 천안시체육인의 밤에 참석.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이협 제3대 회장 연임

전국시 · 군 · 구지방공단이사장협의회(이하 전이협) 현임 회장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원식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해 내년에도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7일~18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전국시 · 군 · 구지방공단이사장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원식 이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는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여영현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학회장, 이현정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전이협 회원 33개 공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정관개정안 심의, 제3대 이사장 선출 등이 진행됐다.

전이협은 2017년 설립된 이래로 전국 33개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실무자들이 모여 각 공단의 상생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공단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원식 이사장은 "공단의 공공성 증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지방공단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도요테크, 천안시 성환읍 소외된 이웃 위해 쌀 기부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반도체 부품 가공업체 전문기업 주식회사 도요테크(대표 강대현)는 19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백미 10㎏ 80포를 성환읍(읍장 구제병)에 기탁했다.

도요테크 기업은 지난 1월에도 평택에서 성환으로의 이전 개소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축하화환 대신 받은 백미 20㎏13포, 10㎏15포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강대현 대표는 "본격적인 추위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시한번 쌀을 기부하게 됐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제병 성환읍장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일에 또다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문의
(042)538-3030

중구 산성동, 동지 팥죽 나눔 중구 산성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준석)는 동지를 앞두고, 19일 직접 만든 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산성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화월)는 팥과 찹쌀가루로 팥죽을 쑤어 많은 주민들과나눴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둔포면, 청소년 안전 캠페인 실시 아산시 둔포면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18일, 둔포중학교에서 청소년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통학길 안전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청소년 호흡기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배포를 실시했다.

청양군 청남면전담의용소방대, 화재감지기 무료 설치 봉사 청양군 청남면전담의용소방대(대장 김덕환)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한문희)는 지난 18일 내작1`2리 65가구에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했다.

대전보훈청, 국가유공자 자서전 출판 기념회 개최 대전지방보훈청은 19일 대덕고 보훈봉사 동아리 학생 8명이 대전보훈요양원에 입소한 6.25참전유공자등 국가유공자 8명의 인생을 기록한 자서전 '헌신 그리고희망' 출판 기념회를가졌다.

청양소방서, 산타와 함께 이동형 119안전체험 이벤트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가 색다른 소방안전체험 · 교육으로 안전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 24일부터25일까지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열리는 청양알프스마을에서 '산타와함께하는 이동형 119안전체험 이벤트' 를 운영한다..

보문산에 멸종위기종 2급 담비 발견

대전충남녹색연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2급 담비' 최종 확인

[사진 설명] 유등천 인접 보문산 절벽에서 확인된 등 부분의 노란색 털이 특징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담비'

그 동안 멸종됐던 것으로 알려진 '담비' 가 대전 보문산에서 발견돼 화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3일 뿌리공원 내 유등천의 오리배 선착장 맞은편 보문산에서 '담비' 를 발견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현장확인과 촬영사진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2급 담비'로 최종 확인했다. 국가에서 매년 5년마다 시행하는 '제4차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일환으로 2018년 국립생태원에서 대전일대 포유류 조사 진행시 확인되지 않았던 담비가 시민의 제보로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2급 법적 보호종인 담비는 식육목 족제비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네팔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활엽수림에는 서식하지 않고 숲이 울창하여 통과하기 어려운 침엽수림에만 2~3마리씩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먹이원은 너구리, 오소리, 청설모, 설치류, 야생조류 등을 잡아먹지만 가을에는 과실, 도토리, 꿀 등도 잘 먹는 육상생태계 최상의 포식자이다.

오랫동안 담비를 연구한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는 담비의 행동반경은 평균 20~40㎢이지만 최대 59㎢까지 이동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넓은 행동반경을 가진 담비는 우산종(Umbrella species)으로서 생태계 보호지역의 설정, 생태축 복원, 생태통로 조성 등에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한, 담비는 하늘다람쥐와 삵과 함께 생태자연도 등급을 반영시키는 주요종이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 ·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이다.

최고 등급인 1등급 기준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 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등으로 정해져 있고 고려사항으로 '1등급의 경우 최대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보문산은 대전시 깃대종인 '천연기념물 제328호, 멸종위기2급, 국가적색목록 취약(VU) 하늘다람쥐' 의 주요 서식지이지만 생태자연도는 2등급이다. 2등급 기준은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있는 지역, 1등급지역의 외부지역' 으로 정해져 있고 고려사항은 '2등급의 경우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시 훼손을 최소화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2등급의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훼손 및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전망타워, 곤돌라, 워터파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가 보문산의 생태적 가치와 대기질 개선의 핵심인 도시 숲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대 여론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보문산 활성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생태보전과 관광활성화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보문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가치와 전세계의 화두인 기후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도시 숲으로서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가진 매우 귀중한 장소이며 대전시의 자원이다. 수년간의 이익을 위해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사업보다는 도시숲으로 잘 보전해 수십, 수백년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와 대전시는 보문산 권역에서 담비의 서식지 위치와 먹이활동 장소, 행동반경 등을 조사하여 보문산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재조정하고 도시 숲으로서 보문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제11회 아산시 고등학생 통일 퀴즈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회장 양태길)는 지난 18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고등학생 통일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관내 10개 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퀴즈대회는 남북문제, 통일, 역사를 주제로 1차 예선과 2차 본선으로 진행됐으며 응원을 나온 각 학교 학생들은 모교 참여자의 우승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100여명이 경쟁을 벌인 이번 퀴즈대회에서는 아산기계 고등학교 정재준 학생이 최종 우승자가 돼 대상을 수상했다.

총 12명의 학생이 입상해 상장과 부상(상품권)을 수여받았으며 가장 단합된 모습으로 응원에 임한 아산고등학교는 응원상을 차지했다.

양태길 회장은 "오늘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대열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통일 퀴즈대회가 남북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통일의 염원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 올해 마지막 일몰 31일 17시25분 · 새해 첫 일출 7시42분

한국천문연구원은 주요 지역의 2019년 12월 31일 일몰시각 및 2020년 1월 1일 일출시각을 발표했다.

2020년 떠오르는 새해 첫 해는 아침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으며,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17시 40분까지 지는 해를 볼 수 있고,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의 세방낙조에서 17시 35분까지 볼 수 있다.

대전은 올해 마지막 일몰은 31일 17시25분이고, 2020년 새해 일출은 7시42분이다.

발표한 일출시각은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계산된 시각으로 고도가 높을수록 일출시각이 빨라져 해발고도 100m에서의 실제 일출시각은 발표시각에 비해 2분가량 빨라진다.

일출이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를 의미하고, 일몰이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정복기자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하천 일원의 교량 및 축사

무허가 건축물 철거 행정절차 돌입

공주시가 반포면 온천리 산 76번지 하천 일원의 교량 및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 76번지 하천 교량에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사용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반포면 온천리 산76번지 하천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민원이 제기되어 접수 받은 날 즉시 현장에 나가 현황을 살펴봤고 불법건축물을 확인 후 다음 날 시행에 옮겨 행정절차법 따라 원상회복 전 단계인 사전의견을 건축주에게 보냈다."며 "사전의견은 원상복구명령 전 단계로 불법건축물을 누가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사전의견이 끝나면 원상복구 명령을 보내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시민 'A'씨는 "국가 소유의 하천에 허가도 받지 않고 다리를 놓고 위에 건축물을 만들어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무법천지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어쳐구니가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 철새 도래시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강화

내년 3월말까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 사육농가 전담관제 운영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미선)이 철새가 도래하는 동절기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는 방역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국내로 도래하는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국가에서 AI가 지속 발생됨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세종보관찰테크 일대를 비롯한 야생조류 도래지역에서 분변 검사를 진행한다. 야생조류 분변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될 경우 농가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 설정 및 방역대 내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 일제검사 등을 추진한다.

야생 철새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 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그물망 정비, 발판 소독조 설치 등 차단방역 요령 지도 및 이행여부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창희 동물위생 시험소장은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며 "농장 출입통제 및 출입구 소독시설 운영 등 농가 자율방역 강화와 철새 분변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논산소방서,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에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겨울철 화재는 5만6685건(28.1%)이다. 겨울철에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히터 제품 사용 시 ▲안전인증 제품 확인 ▲기기 자체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전기장판 안전수칙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플러그 뽑기, 온도조절기에 충격 주지 않기, 접힌 상태로 보관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 분리하기 등이 있다.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고 보일러 · 난로 주변에 가연물을 두면 안 된다. 연통 주변 벽과 천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 난방 기구 사용 부주의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을 올바른 사용으로, 지역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고 당부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서천소방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 전 직원 171명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 대비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연말연시인 30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총 8일간 실시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전 직원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예방순찰과 자율안전관리 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소방안전교육 실시

태안소방서, 재난대응능력 향상코자 추진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19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 이용객 및 직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재난약자와 돌봄 인력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코자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화재 시 '대피먼저' 및 119신고 요령 ▲연기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법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작동 방법 이론 ▲구급마네킹 이용한 맞춤형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 · 실습형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해 교육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 기자재를 이용한 실습을 통해 쉽게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진행됐다.

서용관 태안119안전센터장은 "화재 초기 시 화재진압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피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며 "초기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태안=김정한기자

'2019년 노숙인 추모제' 개최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오는 22일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 오후 6시 30분 대전역 광장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빈곤의 그늘 속에 외롭고 쓸쓸히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을 애도하기 위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올해로 18년째 열리는 2019년 노숙인 추모제는 벧엘의집(희망진료센터, 울안공동체, 쪽방상담소 담당목사 원용철)이 주관하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 · 세종 · 충남지회(지회장 박경남), 빈들공동체 감리교회(담임목사 남재영), 새벽(김철호 목사), 양심과인권-나무(사무처장 이병구), 성서대전(김신일 목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시설장 김의곤), 야곱의집(시설장 윤양수 목사), 성바우로의집(시설장 김경준 신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2019년 노숙인 추모제는 오후 6시 30분부터 1부 추모예배는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가 주최하고 빈들공동체감리교회가 주관하는 길거리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2부 추모식(추모사, 사망자 낭독, 추모 시 낭독, 추모 글 낭독, 추모공연, 노숙인 선언문 낭독, 분향)을 진행한다. 3부에서는 추운 밤을 따스함으로 채울 팥죽 나눔이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고3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라

한국교총, 학교에 끼칠 부작용 · 학생 피해 뻔한 데 무관심 · 무대책 일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가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 · 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때문에 교총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 · 보호, 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 · 제도와의 충돌 해소 등 선결과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과 학생들에게 미칠 여파와 부작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18세 선거가 지역구 조정이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슈에 묻힌 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도매금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파행만 거듭하다 그 어떤 대책도 없이 총선 일정에만 쫓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무책임하며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법안이 18세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다.

교총은 "법이 통과되면 고3 학생들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교실이 정치장화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정치, 이념세력이 학교에 들어오고,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과 교내 정치활동 제한,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교실의 정치 · 선거장화 및 학습권 침해를 차단하는 대책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칫 불법적인 유인물 배포, 유언비어의 SNS 게재, 흑색 · 비방 활동 등에 연루돼 처벌받지 않도록 선거사범 예방 · 보호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처벌 관련 조항이 많고 복잡해 그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성인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상황에서 고3 학생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돼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보호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탁, 진흙탕 선거에서 학생을 보호할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복기자

아산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공체 포럼'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고 기여하는 아산 마을교육공공체 포럼'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은 지난 17일 아산터미널웨딩홀에서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고 기여하는 아산 마을교육공공체 포럼'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아산시와 공동주관으로 '모두가 배우는 도시! 모두가 가르치는 도시! 모두가 기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포럼!'을 주제로 학교 안팎에서 배움과 성장모델, 돌봄체제 구성을 위한 과제, 학부모 배움, 성장, 기여문화 조성, 교육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회 교육복지 활성화 등 모두가 배우는 행복한 마을학교 만들기와 평생교육과 결합된 지역개발, 그리고 학교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학교 교직원과 교육 관계자, 그리고 아산시를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 교육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공주대 양병찬 교수의 '평생학습과 돌봄체제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분과별 토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분과별 토의는 3개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분과는 '학교 안 배움과 성장 문화'를 주제로 관내 교사와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가 발제했으며, 2분과는 '학교 밖 배움과 성장지원'을 주제로 이 분야의 선진 지자체인 은평구, 오산시, 화성시 관계자가 발제했다. 또한 3분과는 '평생교육돌봄체제'를 주제로 충남청소년진흥원장,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 은평구 관계자가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리량주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생의 미래역량 키우는 융합콘서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은 16일 오후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관내 초 · 중 · 고 교사, 학생, 학수모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와 만나는 예술 · 인문학 공감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는 자유학기와 독서인문학이 어우러진 융합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간 운영한 자유학기 운영과 독서교육 성과자료 전시와 더불어 자유학기와 진로교육, 독서인문학 교육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에 이어 학생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감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은 잊지 못할 인생의 멘토를 만났다. 3년간 만권의 책을 읽고, 5년간 80권의 책을 쓴 독서 전문가인 김병완 작가가 '미래 사회와 독서의 힘'이라는 특강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과 다독의 필요성, 독서법 등을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서천고, 2019 학교예술교육 우수학교 · 유공교원 표창

서천고등학교(교장 김병관)는 지난 17일 예술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학교와 유공교사 표창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9 학교예술교육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교원을 발굴하고 예술교육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서천고는 예술문화교과중점학교로서 특화된 교육과정 및 진로설계 지원으로 학습 선택권의 유연화를 도모하고 교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습권 보장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유공교원에 선정된 김영심 교사는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1인 1악기 지도 및 작은 음악회 개최를 통해 재능과 끼를 펼칠 무대를 마련하고 진로와 취미를 고려한 활동반 구성 및 수업을 연계 하여 학생들의 지적 심적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앞으로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민원편람 발간 · 배포

전반적인 교육민원 처리 절차 정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민원 처리 절차를 정리한 「세종시교육청 민원편람」을 발간 ·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민원편람」은 세종시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민원관련 법규의 제 ·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처리부서와 구비서류 등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민원편람을 교육청 민원실을 비롯한 각 부서와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배포 · 비치하고,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에도 탑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민원편람은 민원인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육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민원편람을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충남교육청,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맞아 충의사 참배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충남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은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를 맞아 의사를 모신 예산 충의사를 참배했다.

당진초,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행복키움 요리교실 종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일환…교육복지대상학생 20명 대상

당진초등학교(교장 송하종)는 지난 18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행복키움 요리교실 종강했다.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행복키움 요리교실은 지난 3월부터 주 1회 수요일에 진행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본교 5, 6학년 학생들 중 평소 요리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교육복지대상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요리 메뉴로는 참여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계란말이, 궁중떡볶이, 배추겉절이, 녹차번 등의 기초 한식 요리와 제빵을 진행했으며,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요리전문강사(현대요리학원)의 조리시범을 보고 현대제철 임직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은 바람직한 영양섭취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받았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31회로 종강식을 맞은 행복키움 요리교실은 학생들이 그동안 키워온 실력을 발휘해 케이크와 빵을 만들었으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육성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케이크와 빵을 전달하고 장기자랑을 선보임으로써 잠시나마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다.

이번 사업은 현대제철의 행복키움교육기부로 진행되었고, 학교와 기업이 연계한 상생 복지의 사례로서 더욱 더 알차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서산교육가족 어울림한마당 성황리 개최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은 18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서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서산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서산교육가족 어울림한마당을 개최 했다. 서산교육가족의 화합과 소통, 친목을 도모하고 서산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공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019 희망나눔 일일찻집 장학금 전달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공주교육지원청에서 백옥희 공주교육장을 비롯한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 장학금 수령대상 학생들과 관계자 포함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초`중`고 학생 41명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0학년도 학위과정 신입생 정시 모집 중'

바이오폴리텍대학, 7년 연속 평균 90% 이상의 취업률 기록

한국폴리텍 바이오캠퍼스(학장 엄준철, 이하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는 2020학년도 학위과정 정시모집을 2019년 12월30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91.5%, 전공일치도 97.7%(교육부 정보공시) 달성하는 선도적 바이오 기술대학이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은 2019년 11월 29일 바이오제품 생산 全공정을 학습할 수 있는 러닝팩토리(Learning Factory)를 개관했다.

바이오러닝팩토리는 국내 대학 최초로 교육용 GMP시설을 포함하 여 제품생산제조실, 제품분석실, 동물세포배양실, 제품개발실,미생 물실험실을 배치 하였고(융합형 실습공간이고) 원자재보관, 원료칭량(무게 측정), 제조, 충전 · 포장, 성분분석, 이화학 검사 등의 바이오제품 생산 공정 실습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학장(엄준철)은 "바이오분야 최초 러닝팩토리 실습동을 개관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공정을 학습할 수가 있고, 모든 학과를 연계한 융합 실습을 진행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산업체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끊임없이 변화 · 발전하는 바이오 산업에 맞는 기술력에 가까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의 한학기 등록금은 2019학년도 신입생 기준 120만원대로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모집학과는 ▲바이오품질관리과,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식품분석과,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의약분석과, ▲바이오나노소재과 등 6개 학과이다. 신입생 모집 관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 교무기획처(041-746-7312~16) 또는 입시홈페이지(www.kopo.ac.kr/bio)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정복기자

꿈나래교육원, 소속학교 선생님과 적응교육 실시 대전교육연수원(원장 이광우) 부설 꿈나래교육원에서는 18일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과 소속학교 담임(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탁교육 수료를 앞둔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2020 정부예산 1285억 원 확보

태안군, 자체 신규 · 계속사업 정부예산 전년대비 34.7% 증가

가세로 태안군수가 직접 중앙부처와 충남도 등을 꾸준히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 올해 총 1,285억 원의 내년도 국 · 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군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한 내년도 신규 사업은 17건으로, 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13억 원)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9억 5천만 원) ▲어촌뉴딜 300사업(78억 원)을 비롯해, ▲샘골게이트볼장(9억 6천만 원) ▲파도리권역 거점개발사업(2억 원), ▲태안 농업테마파크 조성(5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13억 4,900만 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 군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주요 계속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15억 5천만 원)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104억 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35억 원) ▲가의도 북항 어촌뉴딜 300사업(11억 원) ▲가경주항 어촌뉴딜 300사업(30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52억 원)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120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39억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6억 원)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국도77호선(안면~고남) 4차로 확장에 25억 원이 반영돼 설계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방도 603호선(태안~원북) 4차로 확장 공사에는 20억 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합동연수원 건립은 설계비 12억 5천만 원이 반영돼 내년 9월까지 설계 완료 후 12월 중 착공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50억 원, 국도77호선(신온~창기)4차로 확장 50억 원,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에 20억 원이 반영돼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세로 군수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환황해권의 중심지, 신해양도시 태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고품질 꿀벌 생산성 향상 교육 열려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고품질 꿀벌 생산성 향상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양봉연구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꿀벌 관리와 양봉기술을 공유해 양봉산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양봉산업 현황, 꿀벌의 생리 생태, 계절별 꿀벌관리 및 질병관리 등에 관한 강의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양봉농가의 경영특성을 분석 파악했다.

김동윤 축수산과장은 "꿀벌산업은 꿀, 화분 등의 꿀벌 산물 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등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양봉농가의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식약청 '의약외품 연구회'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0일 대전식약청에서 대전 · 세종 · 충청지역 의약외품 제조 ·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최근 개정된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비롯해 올해 실시한 의약외품 업체에 대한 감시 사례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 감시 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청남도지사 '표창'

2018년 평가 대비 여성일자리창출 도약 센터로 선정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상담을 비롯해 직업교육훈련과 인턴십 지원,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온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협의회에서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충남지역 새로일하기센터 종합평가 결과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총점 815점으로 전년도 총점보다 19점이 상향되는 등 전반적인 여성취업지원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2월 개소한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올해 157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5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회사 인턴십에 27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7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여성창업토크콘서트와 성공한 창업자와의 멘토링, 취'창업 우수사례 발표 등 취'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경력단절여성들과 기업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안명 팀장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적극 지원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적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철도용품 공정한 납품 · 품질 확보 노력

철도공단, 표준규격의 주기적인 제 · 개정 · 타당성 검증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용품(부품 · 기기 · 장치)의 공정한 납품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규격 99건의 제 · 개정과 타당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철도용품이 특정업체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해 다수 업체가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단 표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제 · 개정하고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최신 철도용품을 공단 표준규격으로 등록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사내벤처 우수 아이템 사업계획서 발표회

심평원, 민간일자리 창출 · 업무개선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본원 24층 회의실에서 "사내벤처 우수 아이템 사업계획서 발표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연세대학교 원주 LINC+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파일럿 과정운영을 통해 우수 벤처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계획서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프로그램은 ▲사내벤처 인식전환 특강 ▲사내벤처 육성 집중 교육 ▲사업계획서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고, 총 23팀(61명)의 아이디어 중 내 · 외부 평가를 통해 3팀(7명)을 선정해 고객 니즈분석,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성공적으로 도출했다.

3개의 우수 아이디어는 ▲국민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 ▲시각적 정보를 질병과 매칭하는 「질병 백과사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약국 취급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로, 향후 비즈니스모델 검증, 고객 리서치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업무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시 마을만들기사업 농촌 · 도시 형 50여단체 참여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온양제일호텔에서 총 3차에 걸쳐 '2020년 마을만들기사업 인큐베이팅과정(아이디어 구체화 지원)'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도시형 · 농촌형 분야별로 역량이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유형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정까지 단계별로 공무원, 전문가의 협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농촌형(희망마을선행사업, 주민참여마중물사업), 도시형(주민참여마을만들기사업)의 5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해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2020년 공모에 신청할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이 이뤄졌다.

지난해와 달리 선(先) 컨설팅, 후(後) 공모로 공모에 관심 있는 공동체 누구나 참여했으며, 2020년 주민참여 마중물 사업에 공모할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뤄지던 사업방식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해 주민이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농촌형 사업은 기존 희망마을 및 현장포럼을 통해 수립된 마을 발전계획의 일부를 소규모 프로젝트로 실행하는 '희망마을 선행사업'과 마을주민이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역량을 실습하는 소액지원의 '주민참여 마중물 사업'이며, 도시형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아산시민 5명 이상의 공동체가 참여해 이웃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관심사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실현에 옮기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다.

김영환 과장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마을 공동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마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앞장 서 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산림복지진흥원, 산림관광콘텐츠 민간공모 우수사례 발굴 산림청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지난 4~11월까지 진행한 '2019년도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 · 운영 민간공모전' 결과 물길따라 풍경산책(김홍식), 종가집 넓은 마당 숲체험(숲과사람), 지오파크 표범폭포 숲길 트레킹(연천농촌관광CB센터) 등 우수 사례(3곳)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관광콘텐츠 민간공모 운영자가 지난달 2일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홍천 미약골 테마공원에서 '물길따라 풍경산책' 코스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앞으로도 산림관광콘텐츠 발굴과 운영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동정

전체회의

오세현 아산시장=20일 오후 2시 선문대학교에서 열리는 '더 큰 시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공동기자회견

김홍장 당진시장=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 분권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가세로 태안군수=20일 오후 1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어르신 예술제

김돈곤 청양군수=20일 오전 11시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2019 어르신 예술제에 참석.

신나는 도전! 신나는 스키캠프!

청양 청남초, 스키캠프 체험학습 다녀와

청남초등학교(교장 오인구)는 겨울 스포츠 체험주간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3~6학년 학생 23명과 교원 8명을 대상으로 양지 파인리조트로 스키캠프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스키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수준별 3개의 조로 나누어 전문 강사와 함께 스키 강습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스키 장비를 착용한 후 강사의 지도에 따라 A자 자세, 스키 활주 방법, 멈추는 방법 등 스키의 기본교육을 충분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 강습이 끝난 후 학생들은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에서 초심자 코스에 도전해 올해 처음 스키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소 겁을 먹어 긴장하기도 했지만 이내 스키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었다.

또한 기본자세가 능숙한 학생들은 강사와 함께 중'상급자 코스에서 자유롭게 스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키캠프에 참여한 3학년 복지현 학생은 "스키는 처음 탔지만 강사님의 강습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재미있게 탔어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2년 연속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가세로 태안군수, 성장 발전 · 상생 · 협치 강화… 리더십 높이 평가 받아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9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중앙일보 · 월간중앙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JTBC 후원으로 열린 '제9회 2020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에서 '혁신경영'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거듭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경영을 펼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선정,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주최측은 가 군수가 '더 잘사는 새태안'을 건설하기 위해 행정구조를 대혁신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태안 미래 발전 동력인 '광개토 대사업'을 역점 추진해 사업을 조기 가시화하는 한편, 태안 성장 발전을 위한 상생 · 협치를 강화하는 등 훌륭한 리더십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70회 충남도민체전 성공개최 및 종합우승, 제25회 충남장애인체전 성공개최 및 종합3위 달성, 제28회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복군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도시로의 위상을 높였으며,

영목항 국가어항 선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 2020 어촌뉴딜300 공모 충남 최대 선정(5곳, 총 사업비 406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여건을 마련했으며, 자동차부품제조기업인 ㈜케이엠에프(KMF)착공, ㈜케어사이드 · (주)오케이섬유 기업유치 등을 통해 군민 일자리를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가세로 군수는 민원처리지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했으며, '민원군수실'을 별도로 설치해 인 · 허가 등 민원서류 결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을 운영해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원스톱민원창구 우수기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더 잘사는 새태안' 건설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인 '광개토 대사업'을 역점 추진한 결과, 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내포철도 구축 검토 ▲중부권 4-2축 고속도로(세종-내포신도시-서산공항-태안) 사업 등 지역 핵심전략사업이 11개나 반영돼 태안 미래 백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기간 태안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을 바로 잡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새로운 태안', '더 살기 좋은 태안',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특히 '광개토 대사업'에 군 역량을 총 집중,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해 태안의 신해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2019년 당진을 빛낸 정책 사업

당진시, 주요시정 10대 성과 발표

당진시가 19일 2019년 한 해를 빛낸 시정 10대 성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진시가 선정한 10대 성과는 ▲정부예산 9055억 원, 공모사업 1088억 확보 역대 최고액 달성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지자체 부문 최우수사례 선정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성공 개최, 당진형 주민자치 전국 확산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아 · 태 네트워크 지역회의 성공적 개최 ▲6년 연속 일자리대상 수상 및 7년 연속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 달성 ▲국내 · 외 우량기업 투자유치 1조원, 고용유발 1만 명 달성 ▲김대건신부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당진2동 원도심에 활력을! 2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철도시대! 당진 석문산단인입철도 건설 사업 착수 ▲전국 최대 규모 통합RPC 현대화 신축사업비 231억 확보 등이다.

당진시는 올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공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벌여 국가사업 7932억 원, 충남도사업 69억 원, 자체사업 1054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9055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2017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등 지속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자체 부문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7월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자치 분야 정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10월에는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를 충남도내 지방정부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상반기 고용률 692%를 기록, 2013년 이후 7년 연속 시 단위 지자체 2위를 이어갔으며, 올 한 해 동안 외국기업 952억, 국내 기업 9152억 등 총1조 10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당진시는 문화분야에서도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유네스코로부터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밖에도 지난해 당진1동에 이어 올해 당진2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0년부터 426억을 투입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됐고, 올해 1월 석문산단과 서해선 복선전철 101정거장을 연결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데 이어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면서 당진의 철도시대 도래를 예고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하수도분야사업 국비 176억원 확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 하수도분야사업 국비 176억3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아산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도시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인구 50만 자족도시 조성을 이루고자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하수도분야 사업 추진에 열정을 기울여 왔었다.

오세현 시장과 하수도과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관련 부처와 국회를 방문 협의해 하수도분야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8건 총 13건, 국비 176.38억원을 확보했다.

신규사업 국비는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 5억원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원 ▲둔포 산전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1억원 ▲배방도시침수대응사업 5억원 ▲온양 · 송악 · 관대 등 하수관로 개량사업 5억원을 확보했다.

온양구도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은 기존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일일 72천톤을 83천톤으로 11천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사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설계 용역을 착수해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다.

계속사업 국비는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 7.55억원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1.33억원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37.53억원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1.47억원 ▲둔포 하수관로정비사업 30.1억원 ▲인주 하수관로정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2.6억원 ▲아산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2.8억원 ▲염성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2억원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퍼스트운동'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8일 김돈곤 군수, 구기수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의 외부 유출이 지역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 지키기' 일환으로 (가칭)청양퍼스트운동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바라는 군민 기대를 반영,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양퍼스트를 범군민운동으로 계획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부터 선행사례를 가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9월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대내외 정당성과 군민운동으로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12월 들어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는 군내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와 군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운동의 정체성, 정책방향, 발전전략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운동명칭 선정 시 외래어 사용 금지 ▲전달력과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과 로고 사이의 개연성 확보 ▲지속가능한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마련 ▲청양사랑상품권의 카드화 방안 마련 ▲기존 청양군의 로고, 각종 슬로건과의 차별성 부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청양퍼스트운동 기본계획은 12월중 최종 완료되며, 2020년 새해 시작과 함께 범군민운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동/네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앞장

당진시, 올해 3년차.. 고대면 사례 충남도 우수사례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당진시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역주민과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민 주도형 교육 사업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처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2017년만 하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많았지만 그 내용은 자치적 활동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공감대가 쌓이면서 올해 들어 공동체의 자치적 활동을 기반으로 마을에 있는 학교를 비롯한 지역기관, 단체와 연계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교사가 돼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이른바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공동체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12개의 공동체가 참여해 마을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의 마을교육과정을 발굴 · 기획해 주민들의 재능을 함께 나누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고대면 마을교육공동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대초, 고산초, 고대중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육과정을 추진했는데, 청소년과 지역어른의 만남의 시간과 지역 바로알기 과정, 마을지도 그리기 등 지역 어른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고대면의 사례는 충청남도 우수사례에도 선정돼 유공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 18일 아산시 소재 모나무르 복합공간에서 열린 충남 공동체 활성화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일반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청양군,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0년부터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이는 일반 가정에도 부모 역할 지원, 가족 역량강화 지원,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또 가정별 수요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족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다문화 및 일반 가정 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주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새로 출범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년간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체로 선정됐다.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 되기도 했다.

이종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갈등'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가족 간 교류 확대와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착을 돕는 포괄적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삼안산업(주), 태안군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끊임없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삼안산업(주)(대표 성낙헌)가 지난 18일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장학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1천만 원을 군에 전달했다. 성낙헌 대표는 "태안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제3회 사랑의 떡국 나눔 잔치 열려

서천특화시장, 연말 이웃사랑 분위기 '후끈'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지난 18일 서천특화시장 중앙주차장에서 제3회 사랑의 떡국 나눔 잔치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상인회는 서천군민과 함께 성장하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상인회는 올해에도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했으며, 노박래 서천군수와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해 행사를 빛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상인회는 올 한 해 먹거리 장터 운영과 상자 판매의 수익금 일부를 출연하고, 개별 상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인 모금과 선물을 상인회에 기부했다.

상인들은 무료 떡국 나눔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선도형시장 육성 사업의 상인 동아리 활동으로 다져진 풍물, 댄스 등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신명 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종석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서천군민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3년째 사랑의 떡국 나눔 잔치를 이어오고 있는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군에서도 서천특화시장을 전국 대표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우수기관 선정

논산시, 예방중심 건강정책 사업 추진 성과인정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난 1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제1회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평가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전략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방중심의 건강정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평가기준은 2개 영역(방문건강관리운영, 인력), 5개 세부평가항목(방문등록 가구 수, 대상자 군분류, 방문내용, 방문인력 등)이다.

그 동안 시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다학제팀을 구성해 건강취약계층 등 7천5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약 4만 회의 건강서비스는 물론 보건소와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거동불(능)편자 진료 및 투약 ▲만성질환 대상자 발굴과 허약노인 건강관리 ▲재가암환자 물품지원과 암예방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 방문서비스 실시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 매월 방문대상자 점검을 위해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더불어 웰다잉 전문교육수료 등 방문간호 전문인력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산에 살고 있는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민간체육회장에 2명 출사표

18일 후보등록 마감 · 28일 선거일 전까지 선거운동 펼쳐

계룡시 체육회는 이달 28일 치러지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19일 밝혔다.

체육회는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로 인해 올해 처음 치러지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달 1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인 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55명으로 확정하고, 각 종목별 협회장과 종목별 배정인 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해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했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계룡시 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한 안봉인(前 수석부회장), 정준영(前 부회장)으로, 후보자들은 19일 자정부터 27일까지 9일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 당일인 28일 오전10시부터는 후보자 소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관계자들의 금품, 향응 등 각종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시 내년 예산안 2066억원 확정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현안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

계룡시는 18일 2020년 예산으로 2,06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심성, 낭비성 지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지난해 1991억원보다 75억원 증가한 206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주민소득 증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20년 주민참여 예산은 9개 사업에 1억6천만원이 반영됐다.

2020년 예산은 일반회계 1,625억원, 특별회계 441억원 규모로 올해에 비해 일반회계는 23억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98억원이 늘어났다.

분야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18억원 ▲문화 및 관광 152억원 ▲일반공공행정 111억원 ▲농림분야 104억원 ▲환경 236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제 행사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원 ▲엑스포 주차장 조성 14억원 ▲ 엑스포 부대행사 지원 9억원 ▲계룡제일문공사 9.8억원 ▲해군상징물 조성 3.3억원 등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과 준비에 집중 투자했다.

또한 첨단 스마트도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건강도시 등 내년도 중점과제 달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5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4.5억원, 스마트 합체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친환경사업비 21억원을 반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도로 기반시설 확충,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개설 및 교통안전 시설 개선‧보완에도 32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의 건강, 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계획했다.

최홍묵 시장은 "2020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비롯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끝에 편성한 것"이라며 "계룡의 미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모두가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무형문화재 계승 활성화에 앞장선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여군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전수장학생과 전승회원 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단체로부터 전수장학생과 전승회원을 추천받아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과 활동비, 공연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 무용 · 음악, 공예 등의 기술처럼 구체적인 형체가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그 기술을 보유한 기능자나 단체가 지정 대상이 된다.

현재 부여군 무형문화재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4호 산유화가, 제17호 내포제시조, 제22호 부여용정리상여소리, 제28호 세도두레풍장, 제29호 내지리단잡기, 제51호 판소리(흥보가)가 있다.

군은 무형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는 만큼 앞으로도 계승 ·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여=김성구기자

서천군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8일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 · 표현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법제처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한 조례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 입법컨설팅 사례의 활용도 ▲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내용의 독창성 또는 충실성 · 법적합성 ▲ 사회적 관심도 ·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4건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서천군은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우수 위임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 · 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점에서 시의성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크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군 내부의 법제심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정 ·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2019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14건의 입법컨설팅을 받았으며, 법령위임 조례 ·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정비과제 80여 건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조례 238건과 규칙 54건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했다.

논산시 최초 주민이 선택한 읍면동장 선출 ·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

황명선 시장, 읍면동장 공모제의 핵심은 시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논산시(시장 황명선)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면장 대상자가 선발됐다. 논산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면장이 탄생한 것이다.

시는 18일 광석 · 연무 · 은진 · 채운면장을 선출하는 '읍면동장시민추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가 열린 4개의 면은 모두 현재 면장이 단수후보자로 나섰다.

면장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은 각자 해당 면 운영계획 등 정견발표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위원회에 함께 참여했으며,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결과는 찬성이 모두 50% 과반수 이상으로 광석면은 장병상 사무관, 연무읍은 박동주 사무관, 은진면은 장원섭 사무관, 채운면은 김영기 사무관으로 추천받았다.

추천 결과는 곧바로 인사부서로 통보되며, 2020년 1월 정기인사 시 면장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위원회가 개최되는 읍 · 면을 차례로 방문, 시민추천공모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눈높이에 맞춘 열린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했으며, 주민들은 후보자의 공약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질문을 던지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읍면동장 공모제의 핵심은 시장의 권한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을 직접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읍 · 면 · 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 · 면 · 동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투표를 거쳐 선출하는 제도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15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논산이 전국 최초다.

19일에는 연산면, 벌곡면, 부창동, 상월면, 20일 가야곡면, 강경읍, 성동면, 노성면, 양촌면, 21일 부적면과 취암동을 마지막으로 관내 15개 모든 읍면동에서 시민추천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시민이 선택한 읍면동장'을 선출하며,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정식 임명하게 된다.

동 정

모금행사

최홍묵 계룡시장= 20일 오전 10시 계룡시보훈회관에서 열리는 희망2020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행사에 참석.

중간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 20일 오전 10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천군 문화예술 중 · 단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역량강화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20일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읍면지역 사회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부여군 송정그림책마을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 선정

부여군 양화면 송정 그림책마을이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이하"인증제") 인증 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17일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동네자치 한마당에서 사례 발표와 함께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인증패를 수여받고 2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는 주민 주도로 3대 위기(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를 극복했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 중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성과로 주민들의 만족 체감도가 높은 모델을 도에서 인증하여, 충남형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전국 표준모델로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부여군에서 운영 중인 송정그림책마을은 평균 연령 80세인 고령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문화 · 생태 · 이야기 자원을 기반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만드는 '내 인생의 그림책'이란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23권의 그림책을 출간했고, 이야기 찻집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 1만 5천여 명이 넘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며 부여군의 대표적인 체험마을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신 마을 대표는 "인구 50여 명에 버스가 하루에 고작 세 번 오고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문제 해결 · 이익 분배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솔선수범하고 서로 양보 · 배려하는 주민 인성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송정그림책마을의 성공적 운영 사례는 높은 주민 참여도가 낳은 결과"라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비전과 전략을 군 차원에서 모색하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펼치겠다"고 말했다.

동 정

전국 라지볼탁구대회 개회식

김정섭 공주시장= 20일 오전 11시 백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공주무령왕배 전국 라지볼탁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제2회 보령사계 전국사진공모전

김동일 보령시장 = 20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하반기 퇴임자 공적 · 공로패 수여식, 오후 2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8회 전국사진공모전 및 제2회 보령사계 전국사진공모전, 오후 3시 남포면에서 열리는 사랑의 집 전달식 참석.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맹정호 서산시장= 20일 오전 8시 4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문정우 금산군수= 20일 오후 1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9회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

교육전문직 연찬회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0일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교육전문직 연찬회에 참석한다.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20일 오전 11시 50분에 비체팰리스에서 교육전문직원 연찬회에 참석.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순회모금 시동

서산시에서는 18일 서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순회모금에 시동을 걸었다.

희망나눔 모금행사와 더불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홍보 캠페인도 실시해, 계절형 실직자 등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찾고 도와 줄 것을 홍보했다.

희망나눔 캠페인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하는 성금모금 행사로 서산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2억2000만원 모금액을 목표로 사회복지과와 각 읍 · 면 · 동 및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접수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시장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총 24억9천여만원을 모금했으며, 서산시에 28억7천여만원이 배분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였다.

서산=김정한기자

daejeontoday.com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만족도 Good!

공주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직원 친절도 · 투철한 사명감 '칭찬'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올 하반기에 처리한 생활민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처리 만족도와 처리 적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가 최근 각 읍'면'동별 민원제기자와 사업대상지 수혜주민 등 284명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종합만족도가 87.02%로 상반기 85.7%보다 1.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생활민원 처리만족도 88.24%, 생활민원 처리 적정성 87.39%, 지역개발사업 처리 만족도 86.34%, 지역개발사업 처리 적정성 86.13%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직원들의 친절과 투철한 사명감 등을 긍정 요인으로 꼽았으며, 반면 생활민원 예산 부족 및 형평성에 맞는 예산 분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읍'면'동별 만족도는 옥룡동이 99.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학동 98.61%, 유구읍 97.33%로 나타났으며, 사곡면이 71.47%로 가장 낮았다.

김영준 건설과장은 "2020년에도 공주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생활민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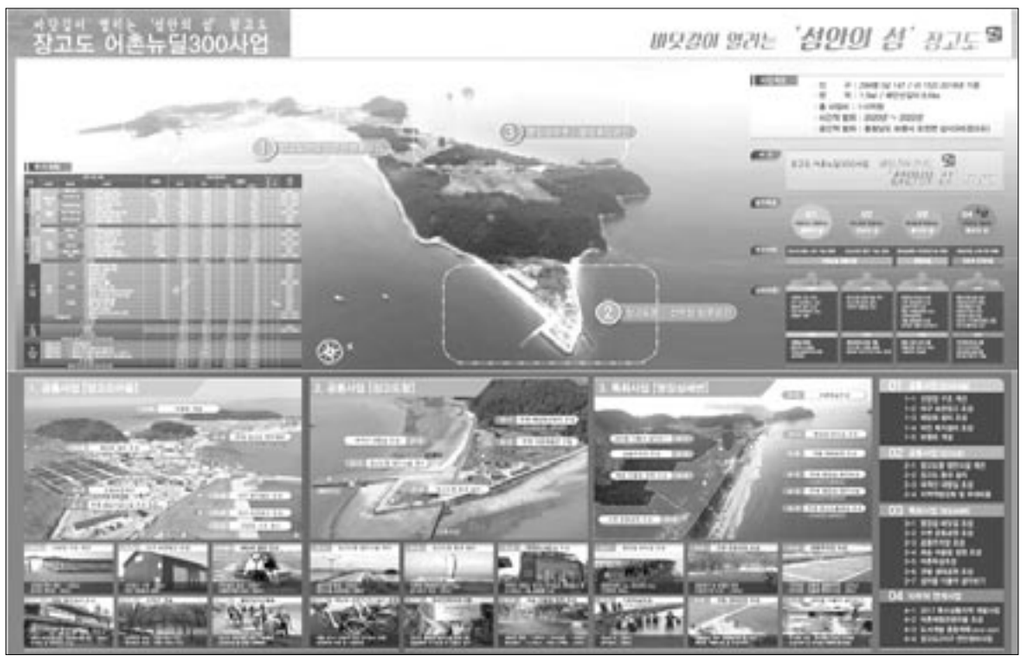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보령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해 사전에 등록된 산부인과로 이송해 준다.

신청방법은 119신고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구급서비스 신청 후 119로 신고를 하면 사전에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해 준다.

한성희 현장대응단장은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임산부가 안심할 수 있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 어촌 정주여건 개선… 도서브랜드 개발 탄력받는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5곳 선정… 오는 2022년까지 312여원 투입

보령시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5개 섬이 선정돼 국비 219억 원을 포함한 312억57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촌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과 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섬은 장고도와 고대도, 호도 등 어촌뉴딜 3개 사업과 효자2리(소도 등 5개섬), 삽시도 등 2개 기항지 개선 등 모두 5개 사업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첫 공모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섬자원개발팀, 어촌어항팀을 신설하고 도서별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주민의 수요,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지난해에는 효자도와 호도가 선정돼 2021년까지 모두 157억 원을 투입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및 관광기반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다.

올해 선정된 '바닷길이 열리는 섬 안의 섬 장고도'는 ▲선양장 구조(1650㎡) 및 접안시설 개선 ▲명장섬 바닷길 및 해송 어울림 정원 조성 ▲체험관광 지도사 양성 및 바다마을 기념품 발굴 ▲어촌 독살복원 및 해당화뷰티상품 개발 등에 109억28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신이 사랑한 섬 고대도'는 ▲방파시설 보강 및 어망어구보관 수리장 설치 ▲칼 귀츨라프 해양친수공원 및 로대애머스트 기념조망 데크 조성 ▲주민해설사 교육과 칼 귀츨라프 해양문화축제 및 순례프로그램 개발 등에 85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여우가 속삭이는 은빛 휴양섬 호도'는 ▲명품 해안데크 및 여우이야기 둘레길 조성 ▲호도 은빛해변축제 및 힐링코스, 섬 마을 요리개발 등에 80억2900만 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오(五)손도(島)손 다섯 형제섬 이야기'인 효자2리와 '삽시다(多)움' 삽시도는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각각 9억2000만 원과 28억 원을 투입해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어촌뉴딜 사업 선정으로 바다와 섬, 수산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한 가기 쉬운 어촌, 해양관광과 체험 수요에 적합한 찾고 싶은 어촌,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공주시 공중화장실 이용객 '만족'

청결 · 소모품 · 안전 80% 이상 만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최근 2주간 관내 공중화장실 이용객 134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상태와 이용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화장실 청결과 비품, 안전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응답자의 81%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실 설치 개소 수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화장실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이용자 의식개선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시설 개보수 14%, 필요 물품 관리 6%, 관리자 책임감 증진 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용자 의식 개선에 대한 추가 의견의 경우, 화장실 내 금연과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하게 이용하길 바라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공중화장실은 이용자가 관리자라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용자가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해야 발전된 화장실 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배려심을 당부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금산인삼축제, 군민 콘텐츠 제안공모전 개최

1인 최대 2개까지 응모 가능

(재)금산축제관광재단이 내년 금산인삼축제 밑그림을 위해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군민 콘텐츠 제안 공모전'을 내년 1월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금산인삼축제에 반영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홍보 · 마케팅, 음식, 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되, 1인 최대 2개까지 응모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금산인삼축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 후 재단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kwc1370@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응모작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주제성, 대중성을 평가해 내달 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최우수 1명(70만원), 우수 1명(50만원), 장려 3명(각 30만원), 입선 5(각 10만원)으로 시상금은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인삼축제 홈페이지(www.insamfestival.co.kr)를 참고하거나, 금산축제관광재단(041-750-4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주연기기자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에 26일 '부분일식 볼수 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에 천문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일식을 볼수 있는 행사를 가진다.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으로 태양 전체가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만 가려지면 부분일식이다.

이번 관측현상은 부분일식으로 오후 2시 12분에 시작되어, 오후 4시 11분에 종료된다.

이번 부분일식 관측프로그램은 이동식망원경과 보조관측실 망원경을 통한 부분일식 관측과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일식으로 구성되며 부분일식 관측 시 태양관측필터카드를 무료 제공하고, 일식현상에 대한 영상관람 및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식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의 올해 마무리되는 부분일식 관측 행사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관측대상이 있을 때 마다 시민분들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2020년도 청소년참여기구 위원 모집

금산군, 실질적 참여 기반 구축 · 민주시민역량 함양

금산군은 청소년 참여 보장을 위해 2020년도 금산군 청소년참여기구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 실질적 참여 기반을 구축,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설치한 기구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프로그램 및 청소년시설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획 · 운영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제안 · 참여 · 평가 등 활동을 하게 되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제안 ▲청소년 권리 · 인권 현황 모니터링 ▲청소년 포럼 · 토론회 · 정책제안대회 등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에 기여하고 주체적 참여의식을 함양해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에 도움을 될 것으로기대된다.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부여, 우수 청소년 포상, 대내 · 외 활동 참여 및 교류활동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기관별 방문 또는 e-mail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모집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청소년미래센터(041-750-4163) ▲금산다락원청소년수련관(041-750-4440)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041-754-6868) ▲금산문화의집(041-754-1318).

금산=김정환기자

호서대, AI단과대학 최초 운영 국내외 '화제'

4차산업시대 대비한 AI 및 SW 인재 교육에 총력 기울이고 있어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가 전국 대학 최초로 AI단과대학을 만들고 AI, IoT, 정보보호 심화전공을 설치하는 등,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AI 및 SW 인재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내외의 화재가 되고 있다.

국내 취재는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취재 문의가 쇄도하고 특히 NHK는 이미 취재를 마치고 곧 방영할 예정이다.

최근 AI ·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호서대학교는 이철성 총장의 인공지능(AI) 교육체제로의 탈바꿈 선언에 따라 AI 교육 기반의 SW 전공교육체제로 개편을 완료하고 전교생에게 SW 교육을 의무화했다.

2020학년도부터 운영되는 AI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의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과 3개 심화 전공과정으로 구분 · 운영된다.

공통과정은 프로그래밍, 수학, 기계학습 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어지는 AI를 포함한 컴퓨터공학 전공 교과들로 구성되며, 3학년부터 시작되는 3개 전공의 각 심화과정은 AI와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AI전공은 자연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정보 검색 등의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IoT 및 정보보호 심화전공도 AI와 융합 · 심화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AI4U(AI for You)'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모든 학생들이 AI를 쉽게 배워갈 수 있도록 각 전공마다 AI 주임교수를 두어 지도하고 있으며 'AI야 놀자' 같은 열린 강좌도 진행하여 실제 응용 사례를 통해 AI 지식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AI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에는 현재 음성인식,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검색 등 AI 관련분야 교수진 8명을 포함한 16명의 교수가 있으며 올해 10명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총 23명의 교원을 초빙할 계획이다.

호서대는 2020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에서 총 571명(가 · 나 · 다군)을 모집한다. 가군에서 일반전형(수능/면접/실기)으로 510명(89.3%)을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일반(수능)전형 53명을 선발하고, 다군에서는 일반전형으로 기독교학과(면접)와 클래식피아노(실기)를 8명 선발한다.

호서대학교 정시모집의 특징은 응시계열이나 학생부 성적과는 무관하게 수능성적으로만(수능100%) 인문 · 자연계열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시 원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월 22일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행복청, 주민참여형 도시건설 및 소통 활성화에 앞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광화문 1번가에서 '제8기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발대식을 갖고 주부모니터단 단원(6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제도정착 '행안부 장관상' 수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 착한가격업소 제도정착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예비심사를 거쳐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산시는 지난 12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착한가격업소 제도정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나서 다양한 착한가격업소 시책을 소개하고, 최종 17일 인센티브(장려)로 포상금 3,000만원 수여 소식을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았다.

배재대, 지역 중학생들 VR체험 · SW 교육 진행 배재대학교(총장김선재)는 17일 느리울중학교 학생 23명을 초청하여 대학일자리본부와 학술정보처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펜의 활용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직접 브로치나 안경을 그려 자신만의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체험시간을 가졌다.

청양군새마을지도자 남녀경진대회 '목면협의회 최우수'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회장 김보연)가 지난 18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한 2019 새마을지도자 남녀경진대회에서 목면협의회가 활성화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중국 하이커우경제대 총장, 교류 확대 위해 백석대 · 백석문화대 방문 중국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하이커우경제대학교(총장 천쇼) 방문단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와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를 내방했다.

한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용 LED 투명우산 2500여개 기부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2개 초등학교에 LED가 부착된 투명우산 2500여개를 기부한다.

당진시, 2년 연속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충남 도지사 표창

위생등급지정 및 건강한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당진시가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지정 및 건강한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당진시 위생등급지정업소로 2018년 18개 업소, 2019년 20개 업소 지정을 받아 작년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

2019년 위생등급지정업소는 ▲한옥카페 차차 ▲썸씽 ▲맛찬들 왕소금구이 ▲카페 미스터 ▲파크리오에 ▲하누리 ▲연안식당 당진시청점 ▲커피베이 합덕점 ▲이지 커피 ▲카페 마실 ▲파리바게트 당진푸르지오 ▲매그놀리아 ▲행담도휴게소(자율식당) ▲푸드오클락 행담도(퓨전, 탕, 라이스) ▲스타벅스(당진시곡 DT점, 당진문예의전당점) ▲할리스커피(행담도휴게소점 상,하) 등이 있으며, 위생등급지정업소에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 50L(200매), 아기식탁의자, 항균 행주, 항균비누, 손 소독제등을 지급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 위생등급제를 집중 홍보 및 신청을 독려하고 등급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강한 식단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대 대학혁신사업단 '2019학년도 대학혁신사업 성과 발표회'

K-LAC 플랫폼 기반의 핵심역량 함양 우수사례 발표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대학혁신사업단(단장 최효철 기획처장)이 19일 대학 30주년 기념관 하나컨벤션홀에서 'K-LAC 플랫폼 기반의 핵심역량 함양 우수사례 발표'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종서 총장을 비롯한 최효철 대학혁신사업단장과 대학 구성원 및 재학생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대학혁신사업에 대한 재학생 및 구성원간의 교육혁신전략 공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교육 혁신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와 '내 참대소' 프로그램의 경우, 각 대학혁신사업 부서별 담당자가 발표자로 나서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나노디그리 ▲JUMP⁺ 학습지원 프로그램 ▲Career 4D+ Step 취업 프로그램 ▲내 학점을 부탁해 ▲취업대특강 ▲프리젠테이션 대회 등 K-LAC 플랫폼 기반의 학생참여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효철 사업단장은 "대전대는 K-LAC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대학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전 구성원이 협심 및 합동해, 대학이 미래 대학의 새로운 표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 충남형 민 · 관협치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백제의 고도 공주로, 친구들아 밤마실 가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을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추진한 '백제의 고도 공주로, 친구들아 밤마실 가자'가 모범적인 민 · 관협치 모델로 선정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 민'관협치 우수사례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백제의 고도 공주로, 친구들아 밤마실 가자'는 공주시와 상인회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 곳에 모아 공주시 밤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15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특히, 밤마실 야시장은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 문화 · 전통자원 등 고유의 지역자원을 연계해 산성시장의 특화상품개발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방문고객 증대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자치분권팀 안경림 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협치가 중요하다"며, "이번 우수사례를 바탕으로앞으로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덕구, 내년 2월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 개관 '준비 박차'

18일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수료식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내년 2월 목상동 210-7번지에 어린이 독서문화공간인 꿈놀작은도서관을 개관한다.

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지난달 20일부터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난 18일 신탄진도서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내년 2월 개관을 앞둔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주민 30여 명이 대상이다.

교육은 마을 작은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기본교육과 도서관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십진분류법(KDC)과 도서관 리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태도 등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그동안 교육에 70% 이상 출석한 수강생 2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향후 꿈놀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방법과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목상동 꿈놀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자율적 합의와 집단적 지성으로 마을안의 독서문화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어린이들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고 고른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2022년까지 해마다 어린이도서관 1개관을 순차적으로 조성 나갈 방침이다.

김태선기자

충남도교육청, 제31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

충남교육청은 19일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6명과 민간인 1명을 수상하는 '제31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관계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올해 수상자는 ▲초등교육 부문에 천안불무초 이후배 교장, 성동초 오도영 교장 ▲중등교육 부문은 천안신방중 임동수 교장, 만리포중 김성은 교사 ▲교육행정 부문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신영수 행정과장, 공주교육지원청 김경식 주무관 ▲평생교육과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 부문은 대둔그룹 유태식 회장이다.

충청남도교육상은 초등, 중등, 교육행정,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 부문에서 충남교육발전에 헌신한 교직원과 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스승상을 정립하고자 198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48명 수상자를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광스러운 상이다.

김정환기자

신선농산물 수출 연말 13억 달러 달성 전망

농가 소득과 밀접한 신선농산물 수출이 2년 연속 호조세다. 지난해 12억 7천 6백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신선농산물 수출은 11월말 기준, 12억 3천만 달러를 돌파해 연말까지 13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인삼 수출액은 11월말 기준 1억 8천 5백만 달러로 연말까지 수출 2억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삼 수출이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기존 뿌리삼 위주였던 단일 품목 수출에서 흑삼 등 수출 품목 다양화로 주요시장의 소비저변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한국 농식품의 주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인삼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고급 선물용이었던 인삼은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함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젊은 층의 섭취량 증가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김치 수출도 11월말 기준 9천 6백만 달러가 수출되어 연말까지 1억 달러 수출이 예상된다. 김치가 세계적인 건강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널리 퍼지면서 대형유통매장에서의 김치 입점이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홍콩에서도 한국 김치가 보양식, 미용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 증가 추세다. 포도와 딸기 수출액도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15% 증가한 1천 9백만 달러와 4천 4백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양파 수출도 눈길을 끈다. 올해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수출로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양파 수출은 당초 정부 목표의 3배가 넘는 5만 1천 톤을 달성했다.

aT 이병호 사장은 "올해 신선농산물의 수출 선전은 수출농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도에도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딸기, 파프리카, 포도, 배 등 대표 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사랑의 쌀' 기증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외부인사접견실에서 농촌지도자회 충남도연합회(회장 공범식)로부터 '사랑의 쌀 및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 사랑의 쌀은 농촌지도자충남연합회가 충남 쌀의 가치를 높이고, 제값 받는 충남 쌀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충남 대표 쌀 삼광벼 품종 확대 재배 운동'을 통해 수확한것이다.

한밭대, 제15회 전국 Junior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9일 교내 그린에너지관에서 '제15회 전국 Junior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밭대학교의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확산 프로그램인 전국 Junior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이다.

공주대 평생교육원, 충남도지사 표창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평생교육원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와 충청남도 주관으로 실시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밑반찬 지원 아산시 온양온천시장(회장 오은호)이 12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MOU원산지 자율관리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건협 대전충남지부, 한민시장상인회서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본부장 김민수)가 19일 한민시장상인회를 방문, 건강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캠페인에서는 한민시장 상인 및 시장이용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바디 체성분검사와 맥박을 통한 스트레스검사를 진행했다.

MG원세종새마을금고,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574만7920원 기탁 MG원세종새마을금고 이성원 이사장(왼쪽)이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오른쪽)에게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574만7920원을 기탁하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로 결성된 아산시밴드연합회

'행복을 주는 사람' 자선공연 펼쳐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로 결성된 아산시밴드연합회(회장 허 윤)는 지난 17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아산시밴드연합회의 공연은 '행복을 주는 사람' 이라는 공연답게 2019년 한 해 바쁘게 달려 온 아산시민들에게 공연을 통해 잠시 쉬어가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입장티켓 발매 수익금 5,000,000원을 공연 시작에 앞서 아산시를 통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1,000,000원을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아인하우스' 에 지정 기탁함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히 온양문화원 뜨개질반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성금 300,000원을 함께 전달하여 자선공연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이종택 시 복지문화국장은 성금을 전달받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아산시밴드연합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아산시밴드연합회 소속인 거북선밴드(리더 허윤), 고재규밴드(리더 고재규), 다커스밴드(리더 임성순), 레드브릭스밴드(리더 최병원), 퀸밴드(리더 이현미)의 회원 40여명이 7080 가요를 비롯해 추억의 팝송, 락음악, 크리스마스 캐롤 등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공연장을 찾은 아산시민들에게 큰 박수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허 윤 회장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번 자선공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 준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아산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조금 더 앞장서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아산시밴드연합회는 관내 학생과 일반인들로 구성돼 음악을 통한 감동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아마추어 밴드로서 특히 아산시의 '1인1악기 배우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남대, 제4회 한남 스타학생 4명 선발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19일 학교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학업은 물론, 봉사활동, 창업, 도전분야의 모범이 되는 한남스타 학생 4명을 선발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한남스타 학생 선발은 도전, 창업, 봉사분야의 지원자를 신청 받았으며, 대상은 강동우(멀티미디어4·도전분야)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도전분야는 노예찬(국어국문창작학과4) 학생, 봉사분야는 강노을(사회복지3) 학생, 창업분야는 홍예원(경영학과4)학생이 각각 스타학생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 장학금 300만원,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 150만원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니어클럽, 2019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공주시니어클럽(관장 노현석)은 지난 19일 충남교통문화 연수원에서 공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재능나눔 일자리 참여자 4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박병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창선, 이상표, 정종순, 오희숙 시의원,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지웅스님 등이 참석했다.

공주시니어클럽은 2018년부터 공주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공주시 노인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개발 및 제공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지난 한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각 분야의 참여자들에 대한 포상과 2019년 한해 활동내용을 정리한 영상시연, 각 사업별 2019년 실적보고가 이루어졌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참여문의는 공주시니어클럽 (☎ 041-853-1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현대제철 '동지 팥죽' 사랑 나눴다

어르신,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에 팥죽 대접

현대제철(대표이사 안동일)이 동지를 맞이해 '동지 팥죽' 나눔 봉사로 사랑을 나눴다.

현대제철은 19일 당진시 종합복지센터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에는 안동일 사장과 임직원 20여 명을 비롯해 김홍장 시장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만든 팥죽은 관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약 400여명이 함께 나누며 동지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무릎담요도 전달했다.

안동일 사장은 "팥죽을 먹으며 질병과 잡귀를 물리친다는 동지의 의미를 떠올리며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대제철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동지 팥죽 나눔 봉사를 올해로 4년째 지속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연말을 맞이해 해피 크리스마스 산타잔치, 지역 학생 대상 사랑의 도서 전달, 관공서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금 1,050만원 서산시에 전달

서산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석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산후원회(회장 ㈜썬라이즈 대표 박경식)가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서산시 아동들에게 난방비 및 성탄선물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시는 지난 18일 시장실에서 '2019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맹정호 서산시장과 박석란 충남지역본부장, 박경식 서산후원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추운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5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서산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7명의 아동가정에 30~50만원 상당의 겨울철 난방비를 전달하고, 10만원 상당의 성탄절 선물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2019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은 13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겨울철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난방비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하는 집중모금캠페인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원금이 관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2019 대전스카이로드 카운트다운 페스티벌' 개최

대전마케팅공사, 오는 12월 31일 20:00부터 24:30까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는 오는 12월 31일(화) 20:00부터 24:30까지 으능정이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일원에서 '2019 대전스카이로드 카운트다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스카이로드 관람객 및 으능정이거리 방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을 보내고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우선, 20:00~21:00에는 으능정이거리를 방문한 친구·연인·가족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스카이로드의 형형색색의 콘텐츠 영상쇼와 더불어 DJ 댄스팀과 함께 하는 댄스파티가 펼쳐진다. 21:00~23:30에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를 맞아 쥐를 상징하는 인형탈로 분장한 출연자가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어울리며 함께 사진도 찍는 '쥐띠해 코스프레', 키다리 삐에로가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나눠주고 사진도 함께 찍는 '키다리 삐에로' 퍼포먼스와 새해를 맞아 소망을 쪽지에 적어 소원을 빌어 보는 '소망트리' 퍼포먼스가 메인무대에 준비되어 있다. 23:30~24:30에는 관람객들과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을 인터뷰도 하고 간단한 즉석게임 등을 통해 선물을 나눠주는 '새해소망 인터뷰 및 레크레이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가요·성악 공연' 도 진행 된다.

김태선기자

온양성결교회, 어려운 이웃에 쌀 100포 후원

온양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재두)가 지난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쌀(10kg)100포를 온양2동행정복지센터에 후원했다.

이날 후원받은 쌀은 관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골고루 배분될 예정으로, 온양성결교회는 매년 7월마다 어르신 섬김 잔치를 개최하고 신도 50명이 모은 10만원을 매월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에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재두 목사는 "지역 주민 모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회 신도들의 마음을 모은 쌀을 지원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양순 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소득 가정이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한 쌀을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건강 칼럼

암보다 무서운 노인 고관절 골절 …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봉주
대전선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화돼 척추 및 고관절 등이 골절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낙상 골절 사고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허벅지와 골반 연결 부위가 부러지는 고관절 골절이다. 60대 이후에는 골조직이 급격히 약화돼 길에서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져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빙판길이 생기는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골절 위험이 특히 증가한다.

노인의 낙상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관절의 경우, 골절로 인해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으면 폐렴, 욕창, 혈전에 의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골 고정술(골절된 부위를 정복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골 고정술보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선호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두렵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해 알아본다.

◆ 인공관절 수술, 언제 필요한가요?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퇴경부 골절(엉치뼈가 부러지는 것), △대퇴 전자간 분쇄골절(대퇴골 상부에서 옆으로 돌출된 부위가 부러지는 것),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대퇴골두 부분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뼈가 썩는 질환), △골 관절염 등이 발생했을 때다.

환자가 고령이라면 고관절 주위 골절의 대부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골절된 대퇴 근위부 뼈를 제거하고 비구(엉치뼈 바깥쪽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해당하는 골반의 연골 부위를 갈아낸 뒤 인공관절 치환물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뼈를 제거하고 비구 연골을 다듬는 과정에서 출혈과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시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 선생님 부모님께도 수술을 권하시겠어요?

보호자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의 부모님께도 수술을 권하시겠어요?"다. 고관절 골절로 인한 부상은 여러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골절 후 심한 통증이 생긴다는 점, △이러한 통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알 수 없다는 점, △골절되면서 생긴 출혈로 인해 심장, 폐, 다른 여러 장기들의 정상적인 기능이 힘들어진다는 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침상에 누워 지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욕창, 흡인성 폐렴, 혈전으로 인해 심뇌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항상 먼저 하는 말도 있다. "평소 식사는 잘 하셨나요?", "평소 활동은 하셨던 분인가요?"등의 질문을 먼저 한다. 고령 환자의 심장이나 폐는 정상 성인보다 약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소견도 검토하지만, 평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식사를 잘 했다면 수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다. 특히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등 타 진료과와의 협진을 통해 수술이 가능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다.

◆ 수술하면 얼마 후에 다시 걸을 수 있나요?

고령의 환자에게 골절이 발생했을 시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며 전신 상태가 좋아질 때를 기다리면 욕창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수술은 대체로 척추 마취를 한 후 진행되고, 수술 후엔 2~3일 동안에는 안정을 취하며 통증을 조절한다. 이때 휠체어 보행 및 기립 운동을 시작한다. 재활 프로그램에 맞추어 회복이 잘 되는 경우에는 상처 치료가 끝나는 2주 정도 후면 보행기를 잡고 병동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

◆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은?

인공관절치환술은 수술 후 부주의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점들에 주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탈구'라는 초기 합병증에 주의해야 한다. 초기 인공관절의 탈구는 습관성 탈구를 유발하고 치환물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치환물을 오래 잘 쓰려면 쪼그려 앉기, 고관절 내전(몸 쪽으로 가까이하는 것) 및 내회전(몸의 중심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무릎보다 낮은 의자에 앉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수술 후 보행 중에 넘어질 수 있어 3개월 정도 지팡이 보행을 권장한다.

◆ 수술을 미루면 안 되나요?

필자의 여러 사례 중, 수술이 위험하다며 수술을 거부했던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2~3개월 누워 통증 조절만 하고 지내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과 누적되는 의료비로 인해 수술을 결심하고 찾아온 경우들이 있다. 인공관절 수술을 망설이는 고령 환자의 가족들도 인공관절치환술이 부모님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고령의 환자가 수술 받는 것이 불안하거나 부모님이 오히려 고생하실까 걱정된다면 한 번쯤은 부모님 입장에서 수술 후의 장점을 생각해본 뒤,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

◆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뼈가 약한 노인들은 단순 낙상으로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어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낙상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항상 난간을 붙잡은 뒤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보행 시에는 굽이 낮은 신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 있을 때는 화장실, 거실 등의 바닥에 물기를 없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절 위험은 골밀도가 줄어들수록 높아져 평소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과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평소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꾸준한 운동은 골밀도가 최대 수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며 중년 이후 골밀도 감소 속도를 줄여준다. 스트레칭,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 걷기와 수영 등의 심폐 지구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칼 럼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정부 공공의료정책의 바로미터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지난해 10월 문재인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을 보면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국립대병원 등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지역-기초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믿을만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신축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고 했다. 그 외에도 중증의료 이송체계 개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으로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지정운영 하는 것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발표에 공공보건의료 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며 기존의 것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 또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로서 금강일보에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은 공공병원 확대로부터'라는 기고를 통해 "이번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정책실현을 위해 공공병원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존의 민간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정책기조에서 한 걸음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의료기관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공익법인이기에 민간의료기관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공공의료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상은 책상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꼬박 1년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지역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 복지부가 다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에 지역의료자원 부족지역인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9개 지역에는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의료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도 여전히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가 발표한 9개 지역의 공공병원설립추진 계획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구용역을 통해 신축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대전의료원의 경우 정부 발표 이전부터 대전의료원설립이 추진되어 현재 KDI의 예타 검토 중에 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이고,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KDI의 1차 중간발표를 보면 경비보다 편익이 낮아 B/C값이 1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대전시는 KDI의 검토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공공병원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에서 제외된 것들과 공공병원의 진료비 절감효과 등을 계량화하여 편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 부산의 경우는 그래도 대도시권이어서 편익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7개 지역은 시장실패 지역으로 경제성 검토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책들은 계량화되지 않은 편익들이 수없이 많기에 경제성 검토를 할 때는 경영 중심의 기존 방식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든지 아예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주의료원 폐업 전까지는 공공병원은 적자만 내는 형편없는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적자, 공공의료를 성실히 행한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실효를 거두려면 가장먼저 예비타당성 검토방식이 바뀌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실현의 바로미터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대전의료원을 시민단체와 대전시가 요구하는 사회적 편익을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설

지역 의무공동도급제 부활 적절하다

지난 2017년 말 일몰 폐지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다시 실시된다. 침체된 지방 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 건설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와 여당은 18일 협의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연구·개발 사업 3개를 제외한 21조원 규모의 20개 SOC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도, 지방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천억)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해야만 입찰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 원)에 대해선 지역 업체 비율 20%를 의무화 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한다는 세부추진 계획도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각종 사업들의 낙수효과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 제시란 점에서 주목된다. 충분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규모가 작고 실적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추진 대형프로젝트 참여에 엄두도차 내지 못했던 지역 입장에선 그나마 단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는 건 당연하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투자가 지역의 총생산에 미치는 비중은 전국평균 16%에 달할 정도로 결코 적지 않다.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이에 비례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외 없이 관급공사 발주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건설노동자·지역생산 자재·장비 등의 우선 사용 규정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데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폐지했던 조치를 다시 부활시켜 훈풍이 불도록 해야 할 정도다. 차질 없는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계법령 조정 등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있어야 한고 수도권 업체들의 역차별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심각한 국가불균형개발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 긴급 대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균형발전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당장 지방건설시장이 일정부분만 살아난다 해도 다행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금 지역 경제는 바닥이고 위기다.

선거구도 모른 채 막 오른 21대 총선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정해진 룰이 없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정작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협상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향후 정치일정에 따라 선거구가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등록률이 낮은 이유도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눈치보기 탓이 아닌가 싶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와 표지물 착용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에 비해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이들에게 예비후보등록은 당연히 거쳐야 할 선거의 시발점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든, 수정안이 통과되든 어차피 몇몇 선거구는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아쉽게도 여야 간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 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치를 룰도 정하지 못한 채 선거 운동에 나선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역 중진의원들의 공천 배제 여부와 험지 출마 등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총선판도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고, 보수진영의 대통합이나 정당 간의 선거 연대 등 여러 변수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등록일 직전까지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미 선거구 획정 확정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룰조차 정하지 못한 채 출발한 선거전이지만 유권자들은 예비후보자들을 세심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할 선량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비록 늦었지만 최선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기대한다.

"출연연 원장 선임, 기관 구성원들 의사 적극 반영해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원장 선임 과정에 기관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원장 후보자를 3배수로 정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은 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조 등의 추천을 받아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임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 출연연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면서도 법령과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이러한 시기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우리 노조 표준연지부와 연구발전협의회, 표준연 바른노조가 공동으로 실시한 신임 원장 후보자 3명의 공약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면서 "선호도 조사 항목을 보면 세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표준연 구성원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선호도 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온 과정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한다. 주요 주제 선정, 핵심 주제별 TF 구성,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조사항목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노조와 표준연 구성원들은 이번 선임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과기정통부가 이 점을 제대로 살펴 주기를 촉구한다. 연구현장의 판단과 동떨어진 인물을 청와대와 과기정통부가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면서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관장 선임 과정에 기관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E Eng
(주) 에스이 이엔지

8Kw
중부권 최고사양
4M
레이저 · 절곡기 도입

모든 소재 절단 가능 (구리·황동·알루미늄)
스텐 40T, AL 25T, 구리·황동 10T, 연강 25T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2-4
대표전화 : 042. 934. 0027